『유가사지론』 권5·8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세분에 대하여*

서민욱**

요 약

이 글은 동일한 위치에 현토된다고 논의되어 온 15 위치의 단점들과 15~25 위치의 수평선들, 35 위치의 사선·역사선들, 45 위치의 사선·역사선들, 53 위치의 사선·역사선들이 그 현토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별되며, 대응하는 자토도 다름을 밝히고자 하였다. 살펴본 결과, 15 위치의 단점들은 +15(·):ㅁ, 15(·):ホ, 15~25(·):ㅁハ으로, 15~25 위치의 수평선들은 15~25(-):尸, +15~25(-):ノ尸으로, 35 위치의 사선·역사선들은 34~35(/):ソ丁乙, +35(/):ソ尸乙, 34~35(\):ノ丁乙, +35(\):ノ尸乙으로, 45 위치의 사선·역사선들은 44~45(/):ソ丁入乙, +45(/):ソ尸入乙, 44~45(\):ノ丁入乙, +45(\):ノ尸入乙으로, 53 위치의 사선·역사선들은 52(/):ソ丁リ亠, 53(/):ソ丁亠, +53(/):ソ尸亠, +52(\):ノ干亠, +53(\):ノ尸亠으로 변별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점토, 점토구결, 단점, 사선, 역사선, 수평선, 한자 획, 위치 세

---

* 이 글은 2005년 2월 15~16일에 열린 제31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오자와 문장이 어색한 부분만 고치고 되도록 발표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두었다.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분, 유가사지론

1. 서론

점토구결에서 점토는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현토된 위치가 다르면 그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 즉 형태는 같지만 현토된 위치가 다른 점토는 서로 변별되는 점토에 해당하고, 각각의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몇몇 점토들은 현토된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치에 현토된다고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를 가진, 같은 위치에 현토된 점토가 두 종류의 자토에 대응된다고 추정되기도 하고,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를 올바로 추정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위치에 현토된다고 논의되어 온 15 위치의 단점들과 15~25 위치의 수평선들, 35 위치의 사선·역사선들, 45 위치의 사선·역사선들, 53 위치의 사선·역사선들이 그 현토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별되며, 대응하는 자토도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자료는 점토구결 자료 중에서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했으며,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예문은 점토구결강독회에서 입력한 『유가사지론』 권5·8 자료를 필자가 원본을 보면서 새로 교정하여 Uniconc[1]로 추출하였다.

2. +15(·):ㅁ

이승재(2002ㄱ)과 장경준(2003ㄴ, 2004ㄱ)에서는 자토 'ㅁ'와 'ㅿ'이

1) 박진호 선생님께서 만든 콘코던스 프로그램(concordance program)이다.

모두 15(・)에 대응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점토구결에서 'ㅁ'와 'ㅗ'에 대응하는 단점은 서로 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서 자토 'ㅁㅅ'에 대응되는 자토도 15 위치쯤에서 발견된다. 이 3개의 점토의 정확한 위치를 실제 사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15(・):ㅁ　　ㄴ. 15(・):ㅗ　　ㄷ. 15~25(・):ㅁㅅ



<유가8, 18: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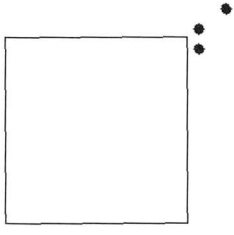


<유가5, 14:15:14>



<유가5, 05:14:08>

ㄹ.



점토구결『유가사지론』권5・8에서 'ㅁ', 'ㅗ', 'ㅁㅅ'에 대응하는 점토들은 (1)에 든 실제 사진들처럼, 한자 사각형의 우측 상단 꼭지점(15 위치)을 기준으로 했을 때, 'ㅁ'에 대응하는 단점은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기입되고(+15(・)), 'ㅗ'에 대응하는 단점은 꼭지점에 가까이 기입되며(15(・)), 'ㅁㅅ'에 대응하는 단점은 꼭지점보다 아래에 기입된다(15~25(・)). 기준 위치에서 벗어나는 예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자 획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변별하여 현토하고 있으므로 이 3개의 단점은 서로 다른

자토에 대응한다고 봐야 한다.

'ホ'과 'ロハ'의 현토 양상은 장을 달리해서 기술하고 여기서는 'ロ'의 현토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토구결에서 'ロ'는 의문조사나 의문형 어미로 쓰이거나, 연결어미로 쓰이거나, 선어말어미로 쓰인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들이다.

(2) ㄱ. 謂ノ仝 非矣リ丨 二諦リ 一リ丨ソ尸丁 二 非矣ㄱリ尸入ㄱ 何ヒミ 得ろ{可}ヒソ千尸ロノ千ㄱ入ㅠミ <구인上, 15:05>

ㄴ. 一リ分 二リヒヒ{之} 義ㄱ 其 事 云何ヒソロヒろ <구인上, 14:19-20>

ㄷ. 心ミ十 驚怖ソミホ 謂尸 我ラ 我ㄱ 今ヨ{者} 何ㄱ 所ミ十 在ソ土ㄱリミヒロノ尸{耶} 无ま <유가20, 25:20-21>

ㄹ. 當ハ 知ㄱ丨 此 淸淨ㄱ 唯ハ 正法ミ十ま 在ソロ 諸 外道ラ十ㄱソヒ 非矣リㄱ丁 <유가20, 20:01-20:02>

ㅁ. 又 彼ㄱ 是 {如}支 欲樂乙 發生ソま 勤精進乙 發ソま 遠離乙 樂まソ尸 已ま ソロ 喜足乙 生尸 不多ノ尸ム <유가20, 29:09-10>

ㅂ. 云何ソㄱ乙 涅槃爲上首リ丨ノ仝ロ … 利養ナ 恭敬ナ 稱譽ナノ尸乙 {爲}ソロ尸丁ㄱ尸 不多ソまソ尸矣丨 <유가20, 04:15-19>

(2ㄱ)은 동명사어미 '-尸' 뒤에 의문조사 '-ロ'가 결합된 예이고, (2ㄴ)은 의존 명사 'ヒ' 뒤에서 의문조사 '-ロ'의 /ㄱ/이 약화되어 '-ろ'가 된 예이다.[2] (2ㄷ)은 선어말어미 '-ミ七-' 뒤에 의문형 어미 '-ロ'가 온 예이다. (2ㄹ, ㅁ)은 'ロ'가 연결어미로 사용된 예인데, (2ㅁ)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하고 나서"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자토 석독구결에서는 특징적으로 "-尸 已ま ソロ" 형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자토구결에

2) 의문조사 'ロ'(고)의 /ㄱ/이 약화되어 'ろ'(오)로 실현됨은 이승재(1996)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는 "어떠한 것을 …이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2ㅂ)처럼 "云何ᄂᆞᆨ ᄀᆞᆯ …ㅣㅣᄂᆞᄉᆞᄆᆞ"와 같은 형식으로 묻는다. (2ㅂ)에서 밑줄친 '{爲}ᄂᆞᄆᆞᄇᆞᆮ'는 선어말어미로 쓰인 '-ㅁ-'를 보여준다.

점토구결에서는 의문조사와 연결어미로 쓰인 '-ㅁ'만이 +15(·)으로 규칙적으로 현토된다. 다만 의문조사로 쓰인 '-ㅁ' 중에서 "云何ᄂᆞᆨ ᄀᆞᆯ … ㅣㅣᄂᆞᄉᆞᄆᆞ"의 'ㅁ'는 'ㅁ'를 단점으로 현토하는 것이 아니라 'ᄂᆞᄉᆞᄆᆞ'를 15 위치에 역사향 쌍점으로 현토하고 있다. 선어말어미로 쓰인 'ㅁ'의 경우는 +15(·)으로 나타난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ᄂᆞᄉᆞᄆᆞ'처럼 다른 선어말어미나 의존 명사와 결합한 어미 구조체를 쌍점이나 선으로 현토하였기 때문에 단점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3) ㄱ. 業分別云何[11~21(-),+15(·)] 謂由二種相[34(·),24(·),33~43(/)] 應知[42(\),51(·)] <유가8, 09:21>

ㄴ. 傍生[31(·)] 人趣[31(·)] 大力餓鬼[31(·),23(·)] 所有[22~23(·), 42(·)] 尋伺多分慝[=22~32(·),+15(·)]行[지시선(/)] 少分欣行[22~32(·),55(·)] 多分觸[역독선]非愛境[34(·),+15(·)] 少分觸可愛[42(·)] 境[34(·),55(·)] <유가5, 17:12-14>

ㄷ. 聞彼語[34(·),15~25(-)] 已[+15(·)] 向此[34(·)?,22(·)] 宣說[35(·)] 聞此語[34(·),15~25(-)] 已[+15(·)] 向彼[34(·),=22(·)?] 宣說[35(·)?,+25(/),51(·)]者[23~33(··)] <유가8, 13:21-22>

(3ㄱ)의 밑줄친 부분은 "業分別은 어떠한 것이냐?"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를 자토구결문으로 바꾸면 "業分別 云何(ᄂᆞ)ᄇᆞᆮ"가 되어 (2ㄴ)의 밑줄친 부분에 평행한 구문이다. (2ㄴ)은 자토구결에서 한번 나오는 예인데, 재미있는 것은 (2ㄴ)에서는 의존 명사 'ᄇᆞᆮ' 뒤에서 의문조사 'ㅁ'의 /ㄱ/이 약화되어 'ㆁ'로 표기되었지만, 점토구결에서는 /ㄱ/이 약화되지 않은 'ㅁ'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ㆁ'로 인식했다면, 계사 '-이-'

뒤에서 '-ㅣ'의 교체형으로 실현되는 32(·)/ㅛ처럼, +15(·)으로 현토하지 않고, 자토 'ᄒᆞ/ㅇ'(오/호)에 대응하는 21(·) 정도로 현토하였을 것이다. (3ㄴ)의 밑줄친 부분은 "多分 感行ㅐㅁ 少分 欣行ㅐᄀᆞ 多分 非愛 境乙 觸(ㅅ)ㅁ 少分 可愛ㄷ 境乙 觸(ㅅ)ᄀᆞ"와 같이 자토구결문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15(·)은 연결어미 'ㅁ'를 나타내기 위해 현토되었다. (3ㄷ)의 밑줄친 부분은 자토구결문으로 "彼 語乙 聞尸 已(ㅣㅅ)ㅁ 此乙 向(ㅅ)ㅣ 宣說(ㅅ)ㅎ 此 語乙 聞尸 已(ㅣㅅ)ㅁ 彼乙 向(ㅅ)ㅣ 宣說(ㅅ)ㅎㅅ尸矢ㅣ"와 같이 재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을 향하여 宣說하거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을 향하여 宣說하거나 하는 것이다" 정도가 된다. 자토구결에서 [계기]를 의미할 때 "-尸 已ㅣㅅㅁ"로 현토된다고 하였는데 이 예의 +15(·)이 이와 같은 쓰임이라 하겠다. 따라서 (2)와 (3) 예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15(·)은 자토 'ㅁ'에 대응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15(·):ᄀᆞᄉᆞ

자토구결에서 'ᄀᆞᄉᆞ'은 보조사로서 연결어미 '-ㅣ'에 결합하여 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의 '뼈곰, 시러곰, 제곰'에 대응하는 '以(ㅣ)ᄀᆞᄉᆞ'과 '得(ㅣ)ᄀᆞᄉᆞ', '(各ㅋ)各(ㅋㅣ)ᄀᆞᄉᆞ'의 형태도 보이는데, '以(ㅣ)ᄀᆞᄉᆞ'은 대격(또는 구격)을 지배하여 아직 문법화하였다고 할 수 없을 듯하고, '得(ㅣ)ᄀᆞᄉᆞ, (各ㅋ)各(ㅋㅣ)ᄀᆞᄉᆞ'은 중세 국어처럼 자토구결에서도 문법화하여 부사로 쓰인다.

(4) ㄱ. 又 勝奢摩他乙 證得ㅅㄱㅅㅛ 卽ᄒᆞ 是{如}ㅈㅅㄱ 奢摩他乙{以}ㅣㄱㅅㅛ{故}ㅅ 己ㅋ乙 謂ㅣᄀᆞᄉᆞ 一切 所作乙 已辦ㅅㅣㅅㅅㄱㅐㅣㅣ ㅌㅣㅅ尸 非ㅎㅅㅎ <유가20, 19:07-09>

ㄴ. 是乙 名下 涅槃乙 以ㅈ 上首 {爲}ㅕㅈ 正法乙 聽聞ㅅ ㄱ ㅋ 得 ㅅ ㄱ 所ㄷ 勝利ㅗ ㅅ ㅎ ㅣ <유가20, 06:10-12>

ㄷ. 我ㄱ 乞食受用乙 因 {爲}ㅕㅈ 身 得ㅈ 久住ㅅ ㅎ 有力ㅅ ㅎ 調適ㅅ ㅎ ㅅ ㅈ <유가20, 08:20-21>

ㄹ. 衆生ㅋ 形相ㄱ 各ㅈ 不多 同ㅂ ㅂ ㅅ <주본화엄14, 15:01>

(4ㄱ)은 연결어미 '-ㅈ' 뒤에 결합한 보조사 '-ㅈ'의 예이다. (4ㄴ)은 대격을 지배하는 '以ㅈ'의 예를 보여준다. (4ㄷ)에서 '得ㅈ'은 "능히"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에 해당한다. (4ㄹ)에서 '各ㅈ'은 "각각"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쓰였다.

점토구결에서는 '得, 各'이 부사로 쓰이는 환경에서 15(·)이 규칙적으로 현토된다. 또한 중세 국어의 '버곰'에 해당하는 예도 하나 보이는데, 이도 자토구결에서처럼 대격 논항을 취하고, 15(·)이 기입되어 있다.

(5) ㄱ. 爲求[역독선]不動[53(·)] 空无邊處[53(·)] 識無邊處[53(·)] 无所有處[53(·)] 非想非非想處[53(·),+35(\),31(·)] 起邪分別[34(·),22(·)] 謂[15(·)] 爲解脫[24(·),42(-),51(·)?] <유가5, 08:22-09:01>

ㄴ. 具[역독선]悲信[11~21(-),42(·)] 者[34(·)] 以[24(·),15(·)] 爲施[+15~25(-)]主[24(·),+15~25(-),31(·),지시선(/)] <유가5, 10:15>

ㄷ. 令諸隨眠[34(·)?,구결자(乙)] 皆[42(·)] 得[15(·)] 堅固[24(·),55(·)] <유가8, 09:02>

ㄹ. 欲色无色界[43(·)] 繫[+15~25(-)] 法[22~32(·)] 各[15(·)] 從{+54(·)}自種子[34(·),=42(·)] 生愛[34(·),+45(/)] 名[=54(·)#53~54(·)] 能潤[53(·),55(·)] <유가5, 12:19-20>

(5ㄱ)의 밑줄친 부분은 자토 '謂(ㅕ)ㅈ'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점토구결에서 15(·)이 용언 어간에 현토될 때 이 예처럼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22(·)/ㅕ은 현토되어 있지 않고, 15(·)/ㅈ만이 현토되어 있다. (5

ㄴ)의 밑줄친 부분을 자토구결로 바꾸면 "-乙 {以}ㅣㅈ"이 된다. 자토구결에서처럼 "以[24(·),15(·)]"이 대격 논항(34(·))을 취하고 있다. (5ㄷ)에서 '得[15(·)]'은 "능히"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로서 자토구결의 '得ㅈ'에 대응하고, (5ㄹ)에서 '各[15(·)]'은 "각각"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로서 자토구결의 '各ㅈ'에 대응한다. 이 예들에 의하면 15(·)은 'ㅈ'에 대응한다 할 수 있다.

4. 15~25(·): ㅁㅂ

『유가사지론』 권20에서 'ㅁㅂ'은 1번 나타나는데 [계기]를 의미하는 "-尸 已ㅣㄴㅁㅂ(ㄱ?)" 형식에 쓰인다. "-ㅁㅂㄱ, -ㅁㅂㄴㄱ, -ㅁㅂㅋㅎ, -ㅁㅂㅋ立"와 같이 어미 구조체에서 실현되는 'ㅁㅂ'을 제외하고 용언 어간에 '-ㅁㅂ'만 결합한 것을 조사해 보면, 'ㅁㅂ'은 대부분이 대구되는 구절에서 [계기] 혹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인다.

(6) ㄱ. 慙恥ノ尸 無ㄱ乙 見 當願衆生 無慙ノ尸入乙 捨離ㄴㅁㅂ 大慈ヒ 道ㅋ十 住ㄴヒ立 <주본화엄14, 07:13>

ㄴ. 信ㄱ {於}境界ㅋ十 所著ノ尸 無リンナヲケ 諸ㄱ 難乙 遠離ㄴㅁㅂ 無難乙 得リナヲケ <주본화엄14, 10:04>

ㄷ. 事乙 訖ㅁㅂ 水ㅋ十 就去ㄱㅣ十ㄱ 當願衆生 出世ヒ 法ヒ 中ㅋ十 速疾ㅎ 而ㅠ 往ㄴヒ立 <주본화엄14, 04:13>

ㄹ. {此}リ 菩薩ㄱ 未來ヒ 諸ㄱ 佛ㅁ{之} 修行ㄴㅎㄱ尸 所乙 聞ㅁㅂ 有 非矢ㄱ入乙 了達ㄴケ <화소35, 13:12-13>

ㅁ. 今ㄴㄱ {此}リ 食乙 以ㅋ 衆生ㄹ十 惠施ㄴㅁㅂ 願ㅁ尸入ㄱ 我ㄱ {於}身ㅋ十 永去 貪著乙 斷ノヲㅋヒㅣンナ尸入乙 {是}リ乙 名下 分減施ミノヲナㅣ <화소35, 09:18-20>

(6)의 예는 각각 "無慙한 것을 버리어 이별하고 大慈의 道에 머무르소서"(6ㄱ), "모든 難을 멀리 이별하고 無難을 얻으며"(6ㄴ), "일을 마치고 물에 나아갈 때에는"(6ㄷ), "미래의 모든 부처의 수행하실 바를 듣고, 있음이 아닌 줄을 了達하며"(6ㄹ), "이제 이 음식을 써 중생에게 보시하고 원하건대 나는 몸에서 영원히 탐착을 끊으리라"(6ㅁ) 정도로 풀이되어, 앞·뒤 절이 대구를 이루고 [계기] 혹은 [대조]의 의미를 가질 때 '-ㅁㅂ'이 현토됨을 보여준다.

점토구결에서는 대구되는 절이면서 [계기] 혹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15~25(·)이 규칙적으로 현토된다. 15~25(·)은 『유가사지론』 권5에서 4번, 권8에서 1번 나타나고, 다음은 그 예들이다.

(7) ㄱ. 捨餘欲塵[34(·),15~25(·)] 得餘欲塵[34(·),55(·)] <유가5, 04:12-13>

ㄴ. 謂如毒熱癰[22~32(·)] 離冷熱等[33(/)] 觸[34(·),15~25(·)] 自性毒熱[=22~32(·),구결자(ㅢ)] 而[43(·)] 牟住[11(/),51~52(/)#51(/),33~43(·\)]故[43(·),51(·)] <유가5, 05:13-15>

ㄷ. 故[41(·)] 於自[23(·)] 化[44(\)#44~55(\)] 非爲希[15~25(·)]奇[11~21(-),24(·),15~25(-),지시선(/)] 用他[=23(·),구결자(ㅋ)] 所化[33(\),42(·)] 欲塵[34(·),24(·)] 爲富貴自在[11~21(-),24(·),+45(-),43(·)] <유가5, 08:01-03>

ㄹ. 自種子[34(·)] 爲先[24(·),55(·)] 除[역독선]種子依[34(·),15~25(·)] 所餘[42(·)] 若有色[53(·)] 若无色[53(·),=24(\),42(·)][묵권점,난상-묵서依(각필31(·))] 及業[31(·),34(·)] 爲建立[=24(·),55(·)] <유가5, 10:03-04>

ㅁ. 知[15~25(·)] 而[43(·)] 說[역독선]妄語[34(·),+25(/),51(·)]者[23~33(··)] 謂覆想欲見[43(·)] 而[43(·)] 說語言[34(·),+25(/),51(·)] <유가8, 13:17-18>

(7)의 밑줄친 부분을 해석하면 그 내용이 각각 "다른 欲塵을 버리고

다른 欲塵을 얻으며"(7ㄱ), "毒熱癰이 冷·熱 등의 觸을 떠나서 自性毒熱이 본래 머무르는 것과 같다"(7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希奇한 것 삼지 않고 남이 化한(변화시킨) 바의 欲塵을 써 富貴 自在한 것 삼는 까닭으로"(7ㄷ), "種子依를 덜고 남은 바의"(7ㄹ), "알고서 妄語를 말함이다"(7ㅁ) 정도가 된다. (7)의 예들은, 공통적으로, 앞·뒤 절이 대구를 이루고 있고 [계기] 혹은 [대조]의 의미로 연결될 때 자토구결이라면 'ㅁㅅ'이 현토됨 직한 곳에 15~25(·)이 현토되어 있다. 이들을 고려해 보면 15~25(·)은 자토 'ㅁㅅ'에 대응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34~35(/):ᄂᆞᆨ ᄀᆞᆯ

『유가사지론』 권20에서 'ᄂᆞᆨ ᄀᆞᆯ'은 다음과 같은 구문들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8) ㄱ. 何 等ᄂᆞᆨ ᄀᆞᆯ 五因ㅣㅣㅣᄂᆞᄉᆞㅁ <유가20, 22:23>
ㄴ. 何ᄃᆞ 等ᄂᆞᆨ ᄀᆞᆯ 名ᄒᆞ {爲}修所成慧 俱ᄂᆞᆨ 光明想ᄅᆞ 所治ㅅ 七法ㅣㅣㅣᄂᆞᄉᆞㅁ <유가20, 12:01-03>
ㄷ. 是 {如}ᄉᆞᆷᄂᆞᆨ ᄀᆞᆯ 名ᄒᆞ {爲}作意錯亂ㅅᄂᆞᄒᆞㅣ <유가20, 10:02>
ㄹ. 一ㅓㄱ{者} 父母ㅅ 妻子ㅅ 奴婢ㅅ 僕使ㅅ 朋友ㅅ 眷屬ㅅ 財穀ㅅ 珎寶ㅅ 等ᄂᆞᆨ ᄀᆞᆯ 棄捨ᄂᆞᄀᆞᄉᆞᄆᆞ 顯ᄂᆞᆨ 所ㅣᄉᆞᆫ <유가20, 17:06-08>
ㅁ. 云何ᄂᆞᆨ ᄀᆞᆯ 聞正法圓滿ㅣㅣㅣᄂᆞᄉᆞㅁ <유가20, 04:06>

(8)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가사지론』 권20에서 'ᄂᆞᆨ ᄀᆞᆯ'은 "何等ᄂᆞᆨ ᄀᆞᆯ … ㅣㅣㅣᄂᆞᄉᆞㅁ", "何ᄃᆞ 等ᄂᆞᆨ ᄀᆞᆯ 名ᄒᆞ …", "是 {如}ᄉᆞᆷᄂᆞᆨ ᄀᆞᆯ 名ᄒᆞ …", "NPㅅ NPㅅ NPㅅ … NPㅅ 等ᄂᆞᆨ ᄀᆞᆯ …", "云何ᄂᆞᆨ ᄀᆞᆯ … ㅣㅣㅣᄂᆞᄉᆞㅁ" 등의 구문들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점토구결에서는 이와 동일한 구문들에 34~35(/)이 규칙적으로 현토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9) ㄱ. 何等[34~35(/)] 四處[51(·),+15(·.)] <유가5, 20:08>
ㄴ. 何等[34~35(/)] 名[54(·)] 爲奧位不善業[51(·),=+15(·.)]耶 <유가8, 21:07-08>
ㄷ. 如是[34~35(/)] 名[54(·)] 爲正行淸淨具足[53(·),+51(·.),6자합부] <유가8, 18:20>
ㄹ. 了知父母[53(·)] 沙門[53(·)] 婆羅門[53(·)] 及家長[53(·)] 等[34~35(/)] 恭*敬供養[35(·)] 利益承事[35(·),=+45(\),=55(·)?,경계선1] <유가5, 18:22-23>
ㅁ. 云何[34(·)] 綺語[51(·),+15(·.)] <유가8, 19:23>

(9ㄱ~ㄹ)은 (8ㄱ~ㄹ)에 각각 평행한 구문으로, 자토구결이라면 'ᄂᆞᆨᄀᆞᆯ'이 나옴 직한 곳에 34~35(/)이 현토되어 있다. 그런데 (9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가사지론』 권20에서는 "云何ᄂᆞᆨᄀᆞᆯ … ㅐㅣㅣᄂᆞᆫᄉᆞㅁㅁ"로 나타나는 구문이 『유가사지론』 권5·8에서는 "云何[34(·)] … [51(·),+15(·.)]"으로 나타난다.

6. +35(/):ᄂᆞᆫᄃᆞᆯᄀᆞᆯ

점토구결에서 +35(/)은 『유가사지론』 권5에만, 7번 나온다. +35(/)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ㄱ. 彼法[22~32(·)] 生[35(·)] 或得[35(·)] 或成[35(·)] 或辦[35(·)] 或[+35(/)]用[=22~32(·),35(·),지시선(/),구결자(ㅐ)] 說此[34(·),22(·)?] 爲彼因[53(·),+51(·.)]//彼 法ㅐ 生ᄒᆞ 或 得ᄒᆞ 或 成(ᄂᆞᆫ)

ᄒᆞ 或 辦(ㅅ)ᄒᆞ 或 用ㅣᄒᆞㅅ尸乙 此乙 說ᄉᆞ {爲}彼 因ㅗ丿ᄒᆞ ㅣ <유가5, 09:23-10:01>

ㄴ. 是故[43(·)] 彼樂[33(·)] 爲非眞實[15(·\),11~21(-),24(·),35(·)] 亦不[역독선?]能[역독선?]制所有[33(/)] 魔[+35(/)]事[34(·),32~42(·),35(·),지시선(/)] 聖慧命者[33(·)] 受用正法[34(·),=15~25(-),33(·)] 則[=21(·)] 不如是[11(·),33(/),51(·)]//是 故ᄆᆞ 彼樂ㄱ 眞實ㅅᄒᆞ 非(矣ㅣ)ㅂ {爲}ᄋᆞᄒᆞ 亦 有ㅅㄱ 所(ㅅ) 魔事乙 制 能 不ㅅ(ㅅ)ᄒᆞㅅ尸乙 聖慧命者ㄱ 正法乙 受用(ㅅ)尸ㄱ 則ᄀᆞ 是 {如}ᄎᆞㅅㄱ 不(矣)ㅣ <유가5, 05:05-07>

ㄷ. 雖已[24(·)] 離欲[+21~31(/),22~23(·)] 復還[21(·)] 退起[+35(/)] 聖慧命者[33(·)] 受用[2자합부-역독선]正法[34(·),=15~25(-),33(·)] 則[21(·)] 不如是[33(/),55(·)]//已ᄋᆞ 離欲ㅅㅅ{雖}ㅛ 復 還ᄀᆞ 退起ㅅ尸乙 聖慧命者ㄱ 正法乙 受用(ㅅ)尸ㄱ 則ᄀᆞ 是{如}(ᄎᆞ)ㅅㄱ 不(矣)ㅎ <유가5, 04:20-21>

ㄹ. 又非聖財所生樂[33(·)] 爲他[23(·)] 劫奪[+45(\),+13(\)#+12~13(\)] 若王[53(·)] 若賊[53(·)] 怨[53(·)] 及水[53(·)] 火[53(·),15(·\),+35(/)]{44(·)?,33(/)?} 聖財所生樂[33(·)] 无[역독선?] 能[25(·)] 侵{+25(/)#24~25(/)}奪[15~24(/),=55(·)]{지시선(/),22(·)}//又 非聖財所生樂ㄱ 他ㅋ 劫奪ㅅ尸ㅅㅅ乙 爲(ㅅ)ㅅ尸ㅁ 若王ㅗ 若 賊ㅗ 怨ㅗ 及 水ㅗ 火ㅗ丿ᄒᆞ ㅅ尸乙 聖財所生樂ㄱ 能矣 侵奪ㅅᄉᆞ 无ᄒᆞ <유가5, 03:05-07>

ㅁ. 又非聖財所生樂[33(·)] 若受用[15~24(/),42(·)] 時[53(·),44(·)] 有盡[35(·)] 有[+35(/)]邊[35(·),지시선(/)] 聖財所生樂[33(·)] 若受用[15~24(/),42(·)] 時[53(·),44(·)] 轉[22(·)] 更[22(·)] 充盛[15(·)] 增長廣大[55(·)]//又 非聖財所生樂ㄱ 若 受用ㅅᄉᆞㄴ 時ㅗ十 有盡(ㅅ)ᄒᆞ 有邊(ㅅ)ᄒᆞㅅ尸乙 聖財所生樂ㄱ 若 受用ㅅᄉᆞㄴ 時ㅗ十 轉ᄉᆞ 更ᄉᆞ 充盛(ㅅᄉᆞ)ㅎ 增長廣大(ㅅ)ᄒᆞ <유가5, 03:03-05>

ㅂ. 謂非聖財所生樂[33(·)] 能[55(·)] 起[역독선]惡行[34(·)?,+35(/)] 聖財所生樂[33(·)] 能[55(·)] 起[역독선]妙行[34(·),55(·)]//謂 非

聖財所生樂ㄱ 能ᄀᆞ 惡行ㄹ 起ㅅᄂᆞᆫㄹ 聖財所生樂ㄱ 能ᄀᆞ 妙行ㄹ 起(ㅅ)ᄀᆞ <유가5, 02:14-15>

ㅅ. 又非聖財所生{42(·)}樂[33(·)?] 不[역독선?]能[역독선]引發[2자합부-역독선]後世[42(·)] 聖非聖財[34(·),32~42(·),+35(/)] 聖財所生樂[33(·)] 能[55(·)] 引發[2자합부-역독선]後世聖非聖財[34(·),55(·)]//又 非聖財所生樂ㄱ 後世ㅌ 聖非聖財ㄹ 引發 能不ᄒᆞㅅᄂᆞᆫㄹ 聖財所生樂ㄱ 能ᄀᆞ 後世 聖非聖財ㄹ 引發(ㅅ)ᄀᆞ <유가5, 02:23-03:03>

(10ㄱ)은 동사구들이 35(·)/ᄒᆞ에 의해 접속되고 있고 마지막 35(·) 뒤에 +35(/)이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 'ᄒᆞ'를 사용하여 동사구들이 접속할 때 마지막 'ᄒᆞ' 뒤에는 이 동사구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동사 'ᄒᆞ-'가 나온다.[3] 따라서 +35(/)은 'ㅅ-'를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ㄱ)은 그 내용이 "그 法이 나거나 혹 얻어지거나 혹 이루어지거나 혹 갖추어지거나 혹 작용이거나 하는 것을, 이것을 일컬어 彼 因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도가 되어, 대격이 올 자리에 +35(/)이 현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토구결에서 대격조사는 '-ㄹ'로 표기된다. 따라서 +35(/)은 '-ㄹ'을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10ㄴ~ㅅ)은 각각 "이런 까닭으로 그 樂은 眞實하지 아니한 것 삼고 또한 있는 바 魔事를 능히 제압할 수 없고 하거늘 聖慧命者는 正法을 受用함은 곧 이와 같지 않다."(10ㄴ), "이미 욕심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도로 退起하거늘 聖慧命者는 正法을 受用함은 곧 이와 같지 않으며"(10ㄷ), "또 非聖財所生樂은 남의 劫奪함을 받되 王이니 賊이니 원수이니 물이니 불이니 하는 것이 하거늘 聖財所生樂은 능히 侵奪할 수 있는 이 없으며"(10ㄹ), "또 非聖財所生樂은 만약 受用할 때에 有盡하고 有邊하고 하거늘 聖財所生樂은 만약

3) 박진호(1998) 참고.

受用할 때에 轉하여 다시 充盛하여서 增長廣大하며"(10ㅁ), "즉 非聖財所生樂은 능히 惡行을 일으키거늘 聖財所生樂은 능히 妙行을 일으키며"(10ㅂ), "또 非聖財所生樂은 後世의 聖非聖財를 능히 引發할 수 없거늘 聖財所生樂은 능히 後世 聖非聖財를 引發하며"(10ㅅ) 정도로 해석된다. 여기서 +35(/)은 현대 국어의 "-거늘"을 의미할 때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 현대 국어의 "-거늘"을 의미할 때에는 '-ㄱ乙, -尸乙'이 사용되는데 주로 '-ㄱ乙'이 사용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35(/)은 'ㅅㄱ乙'이나 'ㅅ尸乙'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ㅅㄱ乙'은 34~35(/)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35(/)은 'ㅅ尸乙'에 대응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토구결에서 'ㅅ尸乙'은 2번 나타난다.

(11) ㄱ. 一切 境界ㅋ 十 微細智礙ㅣㅅㅏㄱㅏ 無明ㅣ 因{爲}ㅣ尸入乙ㅅ
ㅎ 未來ㅋ 十 是 礙ㅣ 更ㅋ 生ㄱ 不(ㅅ/ㅏ)ㅅ尸乙 更ㅋ 生 不
ㅏ(ㅎ/ㅅ)ㅣㅎㄴ 智乙 得尸 未ㅏㅅㅏㄱㅏ 無明ㅣ 因{爲}ㅣ尸
入乙ㅅ丈ㅠ <금광3, 08:08-10>

ㄴ. 隨順資緣圓滿ㅣ(ㅣㅅㄱ入ㄱ?){者} 謂ㄱ 卽ㅎ 四種ㄴ 正法 受
用ㅅㅎㄴ 因緣 現前ㅅㅋㅈ 正法(乙?) 受用ㅅ尸乙 (諸)(ㅋ?) 有
ㅏㅣ 正信ㅅㅌㄴ 長者ㅗ 居士ㅗ 婆羅門ㅗ 等ㅅㄱㅣㅗ <유가
20, 03:13-15>

(11ㄱ)은 "一切 境界에 微細智礙가 있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며 未來에 이 장애가 다시 나지 못하거늘 다시 나지 못하게 하는 智를 얻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는 것이라"와 같이 해석되고, (11ㄴ)은 "隨順資緣圓滿이다 하는 것은, 즉 곧 네 가지의 正法 受用하는 因緣 現前하여서 正法을 受用하거늘, 무릇 있다, 正信한 長者이니 居士이니 婆羅門이니 등등의 이가"와 같이 해석되어, 자토구결에서 'ㅅ尸乙'은 모두 "-거늘"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ㅅ尸乙'이 +35(/)처럼 대격이 올 자

리에 쓰인 경우는 없지만 'ㄴㄱㄹ'이 "-하는 것을"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고 "-하거늘"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므로 'ㄴㄷㄹ'도 두 가지 쓰임이 다 가능하리라고 본다.

7. 34~35(\):ㄴㄱㄹ

점토구결에서 34~35(\)은 『유가사지론』 권8에만, 4번 나타난다. 다음은 그 예이다.

(12) ㄱ. 若彼物主[=22~32(·)] 於彼取者[23(·),44(·)] 而[43(·)] 不捨與[15~25(-),34~35(\)] 是[34(·)] 名[54(·)] 不捨[53(·),=35(·)]//若 彼 物主ㅣ {於}彼 取者ㅋ十 而ㅠ 捨與(ㄴ)ㄷ 不(ㅎ)ㄴㄱㄹ 是ㄹ 名下 不捨ㅗ(ㄴ)ㅎ <유가8, 11:17-18>

ㄴ. 若彼物主[22~32(·)]{32~42(·)?} 於諸衆生[23(·),44(·)] 不隨所欲[=22(·),32~42(·)] 受用[+15~25(-),34(·),21(·)] 而[43(·)] 棄[15~25(-),34~35(\)] 是[34(·)] 名[54(·)] 不棄[53(·),35(·),+55(·.)]//若 彼 物主ㅣ {於}諸 衆生ㅋ十 欲ㅈㅅ 受用ㄴㄷ 所ㄹ 隨ㄴ 而ㅠ 棄(ㄴ)ㄷ 不(ㅎ)ㄴㄱㄹ 是ㄹ 名下 不棄ㅗ(ㄴ)ㅎㄴ ㅈㅏ <유가8, 11:18-19>

ㄷ. 自爲而取[51(·)]者[23~33(··)] 謂不與[34~35(\)] 而[43(·)] 取[43(ㅣ)]故[55(·)] 及不與[34~35(\)] 而 樂[43(ㅣ)]{+21(·)}故[55(·)]//自爲而取(ㅛ)ㅣ{者}xㅅㄱ 謂 與(ㄷ) 不(ㅎ)ㄴㄱㄹ 而ㅠ 取xㄱㅅㅠ{故}ㅏ 及 與(ㄷ) 不(ㅎ)ㄴㄱㄹ 而 樂xㄱㅅㅠ{故}ㅏ <유가8, 11:19-21>

(12ㄱ, ㄴ)은 각각 "또한 그 物主가 그 가지는 자에게 捨與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일컬어 不捨라고 하고", "또한 그 物主가 모든 중생에게

하고자 하여 受用할 바를 따라 내버리지 않는 것을 이것을 일컬어 不棄라고 하고 하는 것이며" 정도로 해석되어, 대격이 올 자리에 34~35(\)이 현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토구결에서 대격조사는 '-乙'로 표기되므로 34~35(\)은 '-乙'을 끝 글자로 하는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12ㄷ)은 "自爲而取다(자신을 위하여 가진다) 하는 것은, 즉 주지 않았거늘 가지는 까닭이며, 또한 주지 않았거늘 즐거워하는 까닭이며"와 같이 해석되고, 여기서 34~35(\)은 현대 국어의 "-거늘"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자토구결에서 현대 국어의 "-거늘"을 의미할 때 '-ㄱ乙'이나 '-尸乙'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34~35(\)은 '-ㄱ乙'이나 '-尸乙'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4~35(/)이 'ㅅㄱ乙'에 대응한다고 추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위치에 현토되나 형태만 다른 34~35(\)도 '-ㄱ乙'을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역사선은 'ㅅ-'를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34~35(\)은 대격이 올 자리에 현토된 점, "-거늘"을 의미할 때 현토된 점, 34~35(/)과 동일한 위치에 현토된 점, 역사선인 점 등을 종합하여 'ㅅㄱ乙' 정도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자토구결에서 'ㅅㄱ乙'은 난상에 교정해 놓은 구결에 유일하게 나타난다.

(13) ㄱ. 幻化ㅣ 幻化ㄴ 衆生乙 見ㅏㄹ 名ㅋ 幻諦ㅅ ㅅㅎㅣㅋ <구인上, 15:08>

ㄴ. 幻化ㅋㅓㅅㅋ 幻化乙 見ㅏㄹ 衆生ㅋㅅㄱ乙ㅅㄴ 名ㅋ 幻諦ㅅ ㅅㅎㅣㅋ <구인上, 15:08난상>[4]

(13ㄴ)은 "幻化에서 幻化를 보고 중생이 하는 것을 일컬어 幻諦라고

4)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은 "환화(幻化)로 된 이가 환화를 보고 중생은 환제(幻諦)라 이름하고"로 되어 있다.

하며"와 같이 해석되며, (12ㄱ, ㄴ)과 비슷한 구문으로 생각된다.

8. +35(\):ノ尸乙

점토구결에서 +35(\)은 『유가사지론』 권5에만, 1번 나타난다.

(14) 爲求[역독선]不動[53(·)] 空无邊處[53(·)] 識無邊處[53(·)] 无所有處[53(·)] 非想非非想處[53(·),+35(\),31(·)] 起邪分別[34(·),22(·)] 謂[15(·)] 爲解脫[24(·),42(-),51(·)?]//不動ㅗ 空无邊處ㅗ 識無邊處ㅗ 无所有處ㅗ 非想非非想處ㅗノ尸乙 求(ン){爲}ㅅ 邪分別乙 起ミ 謂(ミ)ホ 解脫 {爲}ミxヤセ丨 <유가5, 08:22-09:01>

(14)는 "不動이니 空无邊處니 識無邊處니 无所有處니 非想非非想處니 하는 것을 구하고자 邪分別을 일으켜, 말하여서 解脫로 삼을 수 있다" 정도로 풀이되고, 여기서 +35(\)은 53(·)/ㅗ에 의해 접속되고 있는 명사구들 맨 끝에 결합하고 있다. 자토구결에서 접속 조사 'ㅗ'에 의한 명사구 접속의 특징은 뒤아우름의 동사 'ᄒᆞ-'가 거의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다.[5] 또한 (14)에서 +35(\)은 대격이 올 자리에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 'ノ尸乙', 'ノホ乙', 'ノ乙'이 현토된다.

(15) ㄱ. 又 彼ㄱ {於}晝夜ミ十 若 行ンカ 若 住ンカ 衣服ㅗ 飮食ㅗ 命緣ㅗノ尸乙 習近ノㄱㅅ乙 如ハ 習近ンㄱㅅ乙 由ミㄱㅅ{故}ノ <유가20, 27:21-22>

ㄴ. 一者 一切 諸佛ㅗ 菩薩ㅗ 聰慧大智ㅛㅋㄱㅛㅗノ尸乙 供養ン

5) 박진호(1998) 참고.

ᄒᆞ 親近ᄒᆞᄒᆞᄂᆞᆫᄃᆞᆫᄆᆞᆷ 心ᄋᆞ十 猒足ᄂᆞᆫᄃᆞ 無ᄉᆞ <금광3, 03:24-25>

ㄷ. 涅槃ᄉᆞ 無上道ᄉᆞᄂᆞᄉᆞᆫᄃᆞᆯ 開ᄒᆞᄒᆞ 示ᄒᆞᄒᆞ <주본화엄14, 09:21>

ㄹ. 或ᄒᆞᄀᆞ 手足ᄉᆞ 血肉ᄉᆞ 心肺ᄉᆞ 頭目ᄉᆞ 髓腦ᄉᆞᄂᆞᄉᆞᆫᄃᆞᆯ 乞ᄒᆞᄃᆞ ᄀᆞᄒᆞᄉᆞᄀᆞᄃᆞᆯ <화소35, 12:14>

ㅁ. 摩訶般若波羅蜜ᄉᆞ 金剛般若波羅蜜ᄉᆞ 天王問般若波羅蜜ᄉᆞ 光讚般若波羅蜜ᄉᆞᄂᆞᆫᄃᆞᆯ 說ᄋᆞᄒᆞᄂᆞᄅᆞㅣ <구인上, 02:21-23>

(15)에서 보는 것처럼, 자토구결에서 'ㅡ(=ᄉᆞ)'에 의해 접속되는 명사구들을 아울러 목적어로 취할 때, 『유가사지론』 권20과 『(합부)금광명경』 권3은 'ᄂᆞᄃᆞᆫᄃᆞᆯ'을 사용하고, 『화엄경소』 권35와 『화엄경』 권14는 'ᄂᆞᄉᆞᆫᄃᆞᆯ'을 사용하며, 『구역인왕경』 권上은 'ᄂᆞᆫᄃᆞᆯ'을 사용한다. +35(\)은 자토구결 『유가사지론』 권20을 따라 'ᄂᆞᄃᆞᆫᄃᆞᆯ'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9. 44~45(/): ᄂᆞᄀᆞ ㅅᆞᆫᄃᆞᆯ

자토구결에서는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ᄂᆞᄀᆞ ㅅᆞᆫᄃᆞᆯ, ᄂᆞᄀᆞ ㅅᆞᆫᄃᆞᆯ, ᄂᆞᄃᆞ ㅅᆞᆫᄃᆞᆯ, ᄂᆞᄃᆞ ㅅᆞᆫᄃᆞᆯ' 등이 현토되는데, 점토구결에서는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44~45(/), 44~45(\), +45(/), +45(\)' 등이 현토된다.

점토구결에서 44~45(/)은 총55번 나타나는데 '由'자 앞에서 49번, '以'자 앞에서 5번, '𝍐' 앞에서 1번 나타난다. 5종 자토구결에서 '由'자를 찾아보면, '由'자 앞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ᄃᆞᆯ'로 44번 정도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ᄂᆞᄀᆞ ㅅᆞᆫᄃᆞᆯ'로 31번 정도 나타나며, 세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ᄂᆞᄃᆞ ㅅᆞᆫᄃᆞᆯ'로 2번 정도 나타난다. 점토구결에서도 '由'자를 기준으로 찾아보면, '由'자 앞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34(·)으로 70번 정도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44~45(/)으로 49번 정도 나타난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도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를 추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44~45(/)은 'ㅅㄱㅅㄹ'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토구결에서 'ㅅㄱㅅㄹ'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ㄱ. {於}上修道ㅋㅓ 數 習ㅅㄱㅅㄹ 由ㅋㅣㄱㅅㅠ{故}ㅅ <유가20, 05:12>
ㄴ. 此 入境界門ㄹ 緣ㅅㄱㅅㄹ 由ㅋ 必ㅅ 能ㅋ 正性離生ㅋㅓ 趣入ㅅㅏㅁ <유가20, 23:05-06>
ㄷ. 能ㅋ 十種 過失ㄹ 遠離ㅅㅎ 又 能ㅋ 聖所住處ㅋㅓ 安住ㅅㅎ ㅅㄱㅅㄹ {以}ㅋㅣㅋ <유가20, 31:05-07>

(16ㄱ)은 "上修道에 자주 習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와 같이 해석되고, "{於}上修道ㅋㅓ 數 習ㅅㄱㅅㄹ"이 '由-'의 동사구 목적어로 오고 있다. (16ㄴ)은 "이 入境界門을 緣한 것을 말미암아 반드시 능히 正性離生에 趣入하되"로 풀이되며, '由-'가 동사구 "此 入境界門ㄹ 緣ㅅㄱㅅㄹ"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16ㄷ)은 그 내용이 "능히 열 가지 過失을 遠離하고 또 능히 聖所住處에 安住하고 하는 것을 삼아"이고, "能ㅋ 十種 過失ㄹ 遠離ㅅㅎ 又 能ㅋ 聖所住處ㅋㅓ 安住ㅅㅎㅅㄱㅅㄹ"은 '{以}ㅋㅣ-'의 동사구 목적어에 해당한다.

점토구결에서 동사 '由-, 以-'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44~45(/)이 현토된 예는 다음과 같다.

(17) ㄱ. 由攝受現法鄙賤[34(·),44~45(/),24(·),43(·)]故[55(·)]//現法鄙賤ㄹ 攝受ㅅㄱㅅㄹ 由ㅋㅣ(ㄱ)ㅅㅠ{故}ㅋ <유가8, 05:11>
ㄴ. 謂卽[21(·)] 上[42(·)] 十煩惱[33~43(·),53(·)] 由[역독선]迷執[2자합부-역독선]十二種諦[34(·),44~45(/),22(·)] 建立[33~43(·\)] 應知[42(\),51(·)]//謂 卽ㅁ 上ㄴ 十煩惱卬ㅗ 十二種 諦ㄹ 迷執ㅅㄱㅅㄹ 由ㅋ 建立x卬 知ㅅㅁ{應}ㄴㅣ <유가8, 02:

11-12>

ㄷ. 聖財所生樂[33(·)] 一切時[53(·),44(·)] 有[51(·)] 以依內緣[34(·),44~45(/),24(·),=43(·)]故[53(·)]//聖財所生樂ㄱ 一切 時ㅗ ㅓ 有ㅣ 內緣乙 依ㅅㄱ ㅅ乙 {以}ᄋᆞ(ㄱ)ᄆᆞ{故}ㅗ <유가5, 02:20-21>

(17ㄱ)은 "現法鄙賤을 攝受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이며"로 해석되고, "攝受現法鄙賤[34(·),44~45(/)]"이 '由[24(·)]-'의 동사구 목적어로 오고 있다. (17ㄴ)은 "즉 곧 위의 열 번뇌이니, 열두 가지 諦를 迷執하는 것을 말미암아 建立하는 것이니, 알아야 한다"와 같이 풀이되며, 이때 동사 '由-'의 동사구 목적어에도 44~45(/)이 현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7ㄷ)은 그 내용이 "聖財所生樂은 一切 때에 있다. 內緣을 依하는 것을 삼는 까닭이다" 정도가 되고, '以[24(·)]-'이 동사구 "依內緣[34(·),44~45(/)]"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필자는 'ㅅㄱ ㅅ乙'이 한문 원문에 '所'자가 있을 때 'ㅅㄱ 所乙'과 같이 표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자토구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ㅅㄱ 所乙'과 점토구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所[역독선] … [33(/),34(·)]'(… ㅅㄱ 所乙)이 모두 '隨ㅅ'(隨[21(·)])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되고 있다.

(18) 是 {如}ᄉᆞㅅㄱ 二處ㄴ 十種 善巧ㄱ {於}二處所ᄋᆞㅓㅅㄱ 十一種障乙 能ᄀᆞ 斷滅ㅅ{令}ㅣㅏ 生起ㅅㄱ 所乙 隨ㅅ 卽ᄒᆞ 便(ᄒᆞ?) 遠離ㅅㅓㅎㅁ 是 {如}ᄉᆞㅅㄱ乙 名ㅏ {爲}遠離障导ㅗㅅㅎㅣ <유가20, 28:04-06>

(19) 諸[23(·),경계선1] 如是等[33(/)] 煩惱差別[=33(·),구결자(ㄱ)] 佛薄伽梵[22~32(·)?] 隨[역독선]所[역독선]增强[33(/),34(·),21(·)] 於彼種種煩惱門中[44(·),구결자(+)] 建立差別[34(·),51~52(:)#51(:)#51~52(|)#51(|)]//諸ᄒᆞ 是 {如}(ᄉᆞ) 等ㅅㄱ 煩惱差別ㄱ 佛薄伽梵ㅣ 增

强ㄴㄱ 所乙 隨ㄴ (於)彼 種種 煩惱門 中+ 差別乙 建立x ㅣ <유가8, 08:01-03>

44~45(/)은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현토되어 있다는 점, 주로 동사 '由-'와 '以-'의 목적어로 온다는 점 등을 근거로 'ㄴㄱㅅ乙'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10. +45(/):ㄴ尸ㅅ乙

+45(/)은 『유가사지론』 권5에 9번, 『유가사지론』 권8에 12번, 총21번 나타나는데, '名[54(·)]'(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3번, '是[34(·)]名[54(·)]'(是乙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3번, '由[24(·)]'(由彳)의 동사구 목적어에 6번 현토되어 있고, 43(·)/ᄉᆞ 앞에 9번 나타난다. +45(/)은 44~45(/)처럼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동사구에 '… ㅅ乙'이 현토되므로, +45(/)은 'ㅅ乙'을 끝 글자로 하는 구결토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43(·)/ᄉᆞ 앞에 오는 +45(/)은 매개 모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앞에서 동사 '由-'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동사구에 'ㄴㄱㅅ乙'이 주로 현토됨을 살펴보았으므로 제외하면, 자토구결에서 '名下'와 '是乙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되는 '… ㅅ乙'을 찾아보면 +45(/)이 어떤 자토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토구결에서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ㅅ乙'은 6개 정도가 발견되는데 모두 'ㄴ尸ㅅ乙'로 나타난다.[6] 또한 '是乙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ㅅ乙'은 17개 정도가 발견되는데, 『화엄경』 권14에는 1번 나오고 'ナ尸ㅅ乙'로 나타나며, 『화

6) "摠ㅋ 名下"와 "得尸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ㄴ尸ㅅ乙'까지 합한 개수이다.

엄경소』 권35에는 9번 나오고 'ㅅㄴㅁㅅㄹ'로 나타나며, 『유가사지론』 권20에는 7번 나오고[7] 'ㅅㅁㅅㄹ'로 나타난다.

다음은 자토구결에서 '名下'와 '是乙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ㅅㅁㅅㄹ'의 예이다.

(20) ㄱ. 聞ㅅㄱ 所乙 如ㅅ 已ㅋ 得ㅎ 究竟ㅅㅋ 法乙 忘念 不多ㅅㅁㅅㄹ 名下 法光明ㅡㅅㅁㅅㅡ <유가20, 11:05-06>

ㄴ. 此 正加行ㅟ 作意思惟ㅅㅁㅅㄹ 名下 正加行ㅡㅅㅈㅣ <유가20, 25:11-12>

ㄷ. 若 能ㅎ {於}此ㅋ十 餘ㅌ 无ㅎ 永斷ㅅㅁㅅㄹ 名下 極淨道果乙 {爲}證得ㅅㅋㄱㄱㅅㅈㅣ <유가20, 30:10-11>

ㄹ. 幻師ㅣ 幻法乙 見ㅁㅊㄴㅅㅋ 諦實ㅟㅅㅁㄱ 卽ㄹ 皆ㄴ 無ㅅㄱㅣㅋㄴㅣ ㅅㅁㅅㄹ 名ㅋ {爲}諸佛ㄴ 觀ㅋㅅㅈㅣㅎ <구인上, 15:09>

ㅁ. 此 五相乙 由ㅋ ㅅㅁㅅㄹ 是乙 名下 {於}第二處ㅋ十 觀察ㅅㅁㅅㄱㅅㅈㅣ <유가20, 17:16-17>

ㅂ. 此 五相乙 由ㅋ ㅅㅁㅅㄹ 是乙 名下 第三處ㅋ十 觀察ㅅㅁㅅㄱㅅㅈㅣ <유가20, 17:23-18:01>

ㅅ. 此 七相乙 由ㅋ ㅅㅁㅅㄹ 是乙 名下 第四處ㅋ十 觀察ㅅㅁㅅㄱㅅㅈㅣ <유가20, 18:08-09>

ㅇ. 高擧乙 生ㅣㅋㅎ 他乙 從ㄴ 觀ㅋ十 順ㅅㄱ 正法乙 聞ㅁ 不多ㅅㅁㅅㄹ 是乙 名下 毗鉢舍那支ㅋ十 不隨順ㅅㄱ 性ㅡㅅㅈㅎ <유가20, 26:20-21>

ㅈ. 語ㄴ 境界 不思議ㅣㄱㅅㄹ 知ㅏㅁㅅㄹ 是乙 名下 說法三昧ㄴ 力ㅋㅅㅈㅏㅣ <주본화엄14, 20:15>

ㅊ. 念ㅁ 已ㅋㅅㄹㅅㄱ {之}ㅣ乙 施ㅅㅁㅁ 心ㅋ十 悔ㅅㅁ 所ㅋ 無ㄴㅣㅅㅏㅁㅅㄹ {是}ㅣ乙 名下 內施ㅋㅅㅈㅏㅣ <화소35, 11:04-05>

---

7) "是乙 名下" 앞에 "當ㅅ 知ㅎㅣ"가 삽입된 경우도 포함하여 센 개수이다.

(20ㄱ~ㄹ)은 동사 '名下/名ㅋ'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동사구에 'ㅅ尸入乙'이 현토됨을 보여준다. (20ㅁ~ㅇ)은 『유가사지론』 권20에서 '是乙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ㅅ尸入乙'이 현토된 예이고, (20ㅈ,ㅊ)은 『화엄경』 권14와 『화엄경소』 권35에서 '是乙 名下'의 동사구 목적어에 '(ㅅ)ナ尸入乙'이 현토된 예이다.

점토구결에서 '名[54(·)]'와 '是[34(·)]名[54(·)]' 앞에 오는 +45(/)의 예는 다음과 같다.

(21) ㄱ. 欲色无色界[43(·)] 繫[+15~25(-)] 法[22~32(·)] 各[15(·)] 從{+54(·)}自種子[34(·),=42(·)] 生愛[34(·),+45(/)] 名[=54(·)#53~54(·)] 能潤[53(·),55(·)]//欲色无色界ㅠ 繫ノ尸 法ㅣ 各ホ 自種子乙 從ヒ 愛乙 生ㅅ尸入乙 名下 能潤ナ(ㅅ)カ <유가5, 12:19-20>

ㄴ. 爲顯示[2자합부-역독선]煞{21(·)}生如實[31(·)?] 煞生差別[31(·)?] 煞[역독선]所煞生[34(·),=+45(/)#+35(/),3자합부] 名[54(·)] 煞生者[53(·),+15~25(-),31(·),34(·),지시선(\)](又[31(·),51~52(:)#51(:)])//煞生如實ㅅ 煞生差別ㅅ 所煞生乙 煞ㅅ尸入乙 名下 煞生者ナノ尸ㅅ乙 顯示(ㅅ){爲}ㅅx ㅣ <유가8, 11:02-04>

ㄷ. 供養火[+45(/)#+35(/)]天[34(·),지시선(/)] 名[54(·)] 爲祠祀[53(·),+51(·.)]//火天乙 供養ㅅ尸入乙 名下 {爲}祠祀ナノヲ ㅣ <유가8, 16:23-17:01>

ㄹ. 而[43(·)] 轉[+45(/)] 是[34(·)] 名[54(·)] 略[45(·)] 說[역독선] 煩惱自性[34(·),+11(·),+51(·.)]//而ㅠ 轉ㅅ尸入乙 是乙 名下 略ㅎ 煩惱自性乙 說(ㅅ尸)丁ノヲ ㅣ <유가8, 01:16>

ㅁ. 而[43(·)] 轉[+45(/)] 是[34(·)] 名[54(·)] 業自性[53(·),+51(·.)]//而ㅠ 轉ㅅ尸入乙 是乙 名下 業自性ナノヲ ㅣ <유가8, 09:20>

ㅂ. 若彼物主[=22~32(·)] 非先[54(·)] 所與[33(\),33~43(·),34(·),구결자(印)] 如酬債法[11(·),+45(/)]{+53(:)} 是[34(·)]{22~32(·)?} 名[54(·)] 不與[53(·),=35(·)]//若 彼 物主ㅣ 先下 與ノ

ㄱ 所 非(矣)卽乙 酬債法 {如}ᄒᆞᆫᄆᆞᅀᆞᆫ乙 是乙 名下 不與ㅡ(ᄂᆞᆫ)ᄒᆞᄆᆞ <유가8, 11:16-17>

(21ㄱ~ㄷ)은 (20ㄱ~ㄹ)에 평행한 예로 '名[54(·)]'의 동사구 목적어로 '… +45(/)'이 옴을 보여준다. (21ㄹ~ㅂ)은 (20ㅁ~ㅇ)에 평행한 예로 '是[34(·)]名[54(·)]'이 취하는 목적어가 동사구일 때 +45(/)이 현토됨을 보여준다.

+45(/)은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현토되어 있다는 점, 주로 '名[54(·)]'과 '是[34(·)]名[54(·)]'의 목적어로 온다는 점 등을 근거로 'ᄂᆞᆫᄆᆞᅀᆞᆫ乙'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유가사지론』 권5·8에는 +45(/)과 형태도 동일하고 현토되는 위치도 동일하나 구결토 'ᄂᆞᆫᄆᆞᅀᆞᆫ乙'에 대응한다고 파악하기 어려운 +45(/)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필자는 +45(/)을 +45(/)@이라 기록해 두었다.

(22) ㄱ. <유가5, 15:22-23>

A: 又雖無常法[33(·),구결자(ㄱ)?] 爲无常法[23(·)] 因[+45(/)@,+21~31(/),22~23(·)] 然[14(/)] 與他性[23(·),44(·),=42(·)] 爲因[+45(/)@,55(·)] 亦與後[42(·)] 自性[23(·),44(·),=42(·)] 爲因[+45(/)@,55(·),+53(/)] 非[역독선]卽[21(·)] 此刹那[44(·),15~24(/),=55(·)]

B: 又雖無常法[ㄱ] 爲无常法[ㅋ] 因[ᄆᆞᅀᆞᆫ乙@,ᄂᆞᆫᄉᆞᆷ,ᅀᅡ] 然[ᄂᆞᆫᄀᆞ] 與他性[ㅋ,十,七] 爲因[ᄆᆞᅀᆞᆫ乙@,ᄀᆞ] 亦與後[七] 自性[ㅋ,十,七] 爲因[ᄆᆞᅀᆞᆫ乙@,ᄀᆞ,ᄂᆞᆫᄆᆞᅀᆞᄂᆞ] 非卽[ᄀᆞ] 此刹那[十,ᄂᆞᆫᄉᆞᆷ,ᄀᆞ]

C: 又 無常法ㄱ 无常法ㅋ 因 {爲}(ㅣ)ᄆᆞᅀᆞᆫ乙ᄂᆞᆫᄉᆞᆷ{雖}ᅀᅡ 然ᄂᆞᆫᄀᆞ 他性ㅋ十 與七 因 {爲}(ㅣ)ᄆᆞᅀᆞᆫ乙(ᄂᆞᆫ)ᄀᆞ 亦 後七 自性ㅋ十 與七 因 {爲}(ㅣ)ᄆᆞᅀᆞᆫ乙(ᄂᆞᆫ)ᄀᆞᄂᆞᆫᄆᆞᅀᆞᄂᆞ 卽ᄀᆞ 此 刹那十ᄂᆞᆫᄉᆞᆷ 非(矣)ᄀᆞ

D: 또 無常法은 无常法의 因이 되더라도, 그러나 他性에게 더불

어 因이 되며 또 뒤의 自性에게 더불어 因이 되며 하는 것이지 곧 이 刹那에 됨이 아니며

E: 또, 무상함의 법이 무상의 법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른 성품에게 원인이 되고 또한 뒤로는 제 성품에게 원인도 되는데, 곧 한 찰나 동안에 되는 것은 아니다.

(22)처럼 쓰인 +45(/)@은 『유가사지론』 권5·8에 모두 21번 나타나는데, 이때 +45(/)@은 "되다"의 의미를 갖는 '爲'자에 호응하여 현토되어 있어서 자토구결의 지식을 동원했을 때 'ㅅ尸入乙'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토구결에서는 '爲'자가 "되다"를 의미할 때 "-ㅣ尸入乙ㅅ-"와 같이 현토되어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23) ㄱ. 是ㄱ 涅槃ㅣ 思惟ㅅ ᄒᆞ 是ㄱ 生死ㅣ 思惟ㅅᄒᆞㅅㅏㄱㅏ 無明(ㅣ?) 因{爲}ㅣ尸入乙ㅅᄀᆞᆫ 生死 涅槃ᄀᆞ + 不平等ᄒᆞ 思惟ㅅㅏㄱㅏ 無明ㅣ 因{爲}ㅣ尸入乙ㅅᄒᆞᆷ <금광3, 07:22-23>

ㄴ. 若 得無生深法忍 則 諸ㄱ 佛矣 授記ㅅᄒᆞᅀᆞ尸 所ㅣ尸{爲}入乙ㅅᄇᆞᄒᆞᆫᄃᆞ <주본화엄14, 12:14>

ㄷ. 又 二法 有ㄴㅣ {於}現觀乙 修ㅅᄉᆞᆫ 極 障导ㅣ尸{爲}入乙ㅅᄒᆞᆫ <유가20, 24:10>

(23)의 예를 참조하면, +45(/)@은 '尸入乙'에 대응한다고 추정된다. 이는 +45(/)이 'ㅅ尸入乙'과 '-尸入乙'에 모두 대응한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45(/)은 원래 'ㅅ尸入乙'에만 대응하고 "되다"를 의미하는 "-ㅣ尸入乙ㅅ-"의 '-尸入乙'은 임시방편으로 또는 서로 모종의 관련이 있어서 'ㅅ尸入乙'에 대응하는 +45(/)으로 현토했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다.

'ㅅㄱ入乙'이 한문 원문에 '所'자가 있을 때 'ㅅㄱ 所乙'과 같이 표기되듯이, 'ㅅ尸入乙'에 대하여 'ㅅ尸 所乙'도 기대되나, 'ㅅ尸 所乙'은 자토구결에서도, 점토구결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11. 44~45(\):ㅅㄱㅅㄹ

『유가사지론』 권5·8에서 44~45(\)은 9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6번이 '如如[32~42(·)]'(如如ㅅ) 앞에 현토된다. 점토구결에서 44~45(\)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ㄱ. 何以故如如身量[22~32(·)?] 漸[42(·)] 增[22(·)] 廣大[44~45(\),32~42(·)] 如是[11(·),경계선1&] 如是[11(·)] 苦[22~32(·)] 轉[22(·)] 殊勝[55(·)]//何以故(ㅓㅅㅁㄱ) 身量ㅣ 漸ㄷ 增(ㅅ)ㅈ 廣大ㅅㄱㅅㄹ 如如ㅅ 是{如}ㅈ 是{如}ㅈ 苦ㅣ 轉ㅈ 殊勝(ㅅ)ㅎ <유가5, 01:13-14>

ㄴ. 如如依止[22~32(·)?] 漸[42(·)] 更[22(·)] 柔軟[44~45(\),32~42(·),경계선2?] 如是[11(·)] 如是[=11(·)] 苦[22~32(·)] 轉[22(·)] 殊勝[55(·)]//依止ㅣ 漸ㄷ 更ㅈ 柔軟ㅅㄱㅅㄹ 如如ㅅ 是{如}ㅈ 是{如}ㅈ 苦ㅣ 轉ㅈ 殊勝(ㅅ)ㅎ <유가5, 01:14-15>

ㄷ. 如如苦緣[22~32(·)] 漸[42(·)] 更[22(·)] 猛盛[22(·)] 衆多差別[44~45(\),32~42(·)] 如是[=11(·)] 如是[11(·)] 苦[22~32(·)?] 轉[22(·)] 殊勝[55(·)]//苦緣ㅣ 漸ㄷ 更ㅈ 猛盛(ㅅ)ㅈ 衆多差別ㅅㄱㅅㄹ 如如ㅅ 是{如}ㅈ 是{如}ㅈ 苦ㅣ 轉ㅈ 殊勝(ㅅ)ㅎ <유가5, 01:15-17>

ㄹ. 如如時分[22~32(·)] 漸[42(·)] 遠[15(·)] 无間[44~45(\),32~42(·)] 如是[11(·)?] 如是[11(·)] 苦[22~32(·)?] 轉[22(·)?] 殊勝[55(·)]//時分ㅣ 漸ㄷ 遠ㅎ 无間ㅅㄱㅅㄹ 如如ㅅ 是{如}ㅈ 是{如}ㅈ 苦ㅣ 轉ㅈ 殊勝(ㅅ)ㅎ <유가5, 01:17-18>

ㅁ. 如如內心[44(·)] 無簡擇力[=22~32(·),구결자(ㅣ)] 漸漸增廣[44~45(\),32~42(·)?] 如是[11(·)] 如是[11(·)] 苦[22~32(·)?] 轉[22(·)?] 殊勝[55(·)]//內心十 無簡擇力ㅣ 漸漸 增廣ㅅㄱㅅㄹ 如如ㅅ 是{如}ㅈ 是{如}ㅈ 苦ㅣ 轉ㅈ 殊勝(ㅅ)ㅎ <유가5, 01:18-19>

ㅂ. 如如所依[42(·)?] 苦{22~32(·)}器[=22~32(·)] 漸[42(·)?] 增[44~45(\),32~42(·)] 如是[11(·)?] 如是[11(·)?] 苦[22~32(·)?] {24(·)?} 轉[22(·)?] 殊[15(\·)#+15(\·)?,=44~45(\·)#34~35(\·), 43(|)#43(:),53(·),경계선1?]勝[55(·),지시선(/)&]{44~45(/)?}// 所依ヒ 苦器ㅣ 漸ヒ 增ノㄱㅅㄹ 如如ハ 是 {如}ㅊ 是 {如}ㅊ 苦ㅣ 轉ㅋ 殊勝(ㇴ)ㅎXXxㄱㅅㅡㅗ <유가5, 01:19-20>

ㅅ. 於欲界[43(·)] 繫[+15~25(-)] 法[31(·)?] 色无色界[43(·)] 繫[+15~25(-)] 法[=31(·)] 及[42(·)?] 不繫[42(·)] 法[=31(·),44(·),구결자(+)] 施設名[34(·),=44~45(\)] 爲先[24(·),43(/)]故[21(·)] 想[22~32(·)] 轉[55(·)?]//{於}欲界ㅡ 繫ノ尸 法ㅅ 色无色界ㅡ 繫ノ尸 法ㅅ 及ヒ 不繫ヒ 法ㅅ十 名ㄹ 施設ノㄱㅅㄹ 先 {爲}ㅈㅅㄱㅅㅡ{故}ノ 想ㅣ 轉(ㇴ)ㅎ <유가5, 11:22-12:01>

ㅇ. 若已見[51(·)]者[23~33(··)] 謂隨[역독선]曾見[44~45(\),21(·)] 所經[33(\),42(·)] 語言[22~32(·),55(·)]//若 已見(ㅣ)ㅣ{者}xㅅㄱ 謂 曾 見ノㄱㅅㄹ 隨ノ 經ノㄱ 所ヒ 語言ㅣㅎ <유가8, 13:12-13>

ㅈ. 如由自[23(·)] 因[34(·),22(·),44~45(\),11(/)] 他因亦亦[=51(·)] //自ㅋ 因ㄹ 由ㅋ ノㄱㅅㄹㅅㄱ{如}ㅊ 他 因(ㄱ) 亦 亦(ㇴ)ㅣ <유가8, 13:14-15>

(24)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점토구결에서 44~45(\)은 '如如[32~42(·)]'(如如ハ)의 동사구 목적어에 주로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 동사구가 목적어로 올 때 'ノㄱㅅㄹ, ㅅ尸ㅅㄹ, ノㄱㅅㄹ, ノ尸ㅅㄹ' 등이 현토되므로 44~45(\)은 'ㅅㄹ'을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점토구결에서 44~45(\)이 주로 '如如[32~42(·)]'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되므로, 자토구결에서 '如ハ'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현토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44~45(\)에 대응하는 구결토의 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5) 又 彼ㄱ {於}晝夜ㅣ十 若 行ㄴ乃 若 住ㄴ乃 衣服ㅗ 飮食ㅗ 命緣 ㅗㄴ尸乙 習近ㄴㄱ入乙 如ㅅ 習近ㄴㄱ入乙 由ㅣㄱ入ㅱ{故}ㄴ <유가20, 27:21-22>

자토구결에서 '如ㅅ'가 동사구 목적어를 취하는 예는 한 예가 발견되는데 'ㄴㄱ入乙'로 나타난다. 하지만 유일례이기 때문에 (24)와 (25)를 비교하여 44~45(\)을 'ㄴㄱ入乙'에 대응한다고 추정하기가 망설여진다.

자토구결에서 한문 원문에 '所'자가 있을 경우 'ㄴㄱ入乙'은 'ㄴㄱ 所乙'과 같이 나타난다. 자토구결에서 'ㄴㄱ 所乙'의 예를 찾아보면 17개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중 9개가 '如ㅅ'의 동사구 목적어에 해당한다.

(26) ㄱ. 是 {如}ㅈㄴㄱ 十種乙 能熟解脫慧ㄷ 成熟法ㅗㄴ尸ㅗ 先下 說 ㄴㄱ 所乙 如ㅅ 漸次ㅱ 能ㅁ 解脫 圓滿ㄴ{令}ㅢㅏㅎㄷㅣ <유가20, 07:14-16>

ㄴ. 大事ㅗ 大用ㅗㄴ尸乙 意ㄷ 願ㄴㄱ 所乙 如ㅅ 悉ㅋ 皆 成就ㄴㅁ <금광3, 06:24>

ㄷ. 設(ㅡ?)ㅅ 得ㅂ 出家ㄴㅋ乃 此 尋思ㅱ{之} 擾動ㄴㄱ 所乙 由ㅋ 障导乙 爲ㅡㅢ尸入ㅱ{故}ㄴ <유가20, 08:08-10>

ㄹ. 在家ㅗ 出家ㅗㄴ尸乙 與ㄷ 共相 雜住ㄴㅋ {於}聞ㄴㄱ 所乙 隨ㄴ 究竟ㄴ尸 所ㄷ 法ㅋ十 如理ㅎ 作意思惟 能 不ㅅㄴㅁ <유가20, 11:20-21>

ㅁ. 或ㅏㅣ 天上ㅋㄷ 因陀網 {如}ㅈㄴㄱ矢ㅈ 一ㄱ 塵ㄷ 中ㅋ十 示現ㄴㄱ 所乙ㄴ尸{如}ㅈ 一切 微塵ㅋ十力 悉ㅋ {亦}力 然ㅈㄴㅏㅌㄱ矢ㅈ <주본화엄14, 15:13-14>

(26ㄱ, ㄴ)에서 보듯이, 자토구결에서도 동사 '如ㅅ'이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그 동사구에는 'ㄴㄱ 所乙(=ㄴㄱ入乙)'이 주로 현토됨을 알 수 있다. (24)와 (25), (26)을 비교하면, 44~45(\)은 'ㄴㄱ入乙'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점토구결에서 '所 … [33(\),34(·)]'(… ノ丁 所乙)의 예를 찾아보면, '所 … [33(\),34(·)]'의 경우는 9번 중 7번이 '隨[21(·)]'(隨ノ)의 동사구 목적어에 해당한다.[8] 점토구결만 보면 '所 … [33(\),34(·)]'(… ノ丁 所乙)은 '隨[21(·)]'(隨ノ)의 동사구 목적어에 특징적으로 현토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토구결에서 동사 '隨ノ/隨ぞ'를 찾아보면, '隨ノ/隨ぞ'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ノ丁 所乙(=ノ丁ㅅ乙)', 'ノ尸 所乙(=ノ尸ㅅ乙)', 'ン丁 所乙(=ン丁ㅅ乙)'의 예는 엇비슷하게 나오므로, 동사 '隨ノ/隨ぞ'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특징적으로 'ノ丁 所乙(=ノ丁ㅅ乙)'을 취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12. +45(\):ノ尸ㅅ乙

『유가사지론』 권5·8에서 +45(\)은 모두 28번 나온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ㄱ. 又顯非撥此三種善[42(·)] 能治所治所得果[34(·),+45(\),43(:)]故[21(·)]//又 此 三種 善ヒ 能治 所治 所得果乙 非撥ノ尸ㅅ乙 顯(ン)ニ丁ㅅ〻{故}ノ <유가8, 17:04-05>

ㄴ. 與憂[42(·)] 相應[55(·)] 常[22~32(·)] 求脫苦[34(·),+45(\),=55(·)]//憂 與ヒ 相應(ン)カ 常ㅂ 苦乙 脫ノ尸ㅅ乙 求(ン)カ <유가5, 17:10>

ㄷ. 彼[33(·)] 作[역독선?]是說[+45(\),25(\)]{33~43(·)} 百踰繕那內[44(·)] 所有[33(/),42(·)]//彼丁 是 說ノ尸ㅅ乙 作ナ尸 百 踰繕那 內十 有ン丁 所ヒ <유가8, 10:12-13>

---

8) 점토구결에서 '隨[21(·)]'(隨ノ)의 동사구 목적어에 7번 현토되는 '所 … [33(\),34(·)]'(… ノ丁 所乙)은 6번이 '隨其所應[33(\),34(·),21(·)]'(其 應ノ丁 所乙 隨ノ)과 같이 나타난다.

ㄹ. 如於色[44(·),+45(\),11(/),경계선1]界[지시선(/)] 於無色界[44(·),+15~25(-)] 亦亦[=51(·)]//{於}色界+ㅅ尸ㅅㄹㅅㄱ{如}ㅊ {於}無色界+ㅅ尸(ㄱ) 亦 亦(ㅅ)ㅣ <유가8, 02:22>

ㅁ. 又非聖財所生樂[33(·)] 爲他[23(·)] 劫奪[+45(\),+13(\)#+12~13(\)]//又 非聖財所生樂ㄱ 他ㅋ 劫奪ㅅ尸ㅅㄹ 爲(ㅎ)ㅅ尸ㅁ <유가5, 03:05-06>

ㅂ. 能[55(·)] 令所欲[44(·)] 常[22~32(·)] 有賈[24(·),21(.·),경계선1]乏[+45(\),22~23(·),지시선(/)] 故[41(·)] 名[54(·)] 爲燒[53(·),+55(·.)]//能ㅎ 所欲十 常ㅣ 賈乏ㅅ尸ㅅㄹ {有}ㅐ令ㅣX 故ㅈ 名下 {爲}燒ㅓㅅ丰ㅎ <유가8, 07:18-19>

점토구결에서 +45(\)은 동사 '顯-'의 동사구 목적어에 12번, 동사 '求-'의 동사구 목적어에 6번, 동사 '作'의 동사구 목적어에 2번, 'ㅅㄱ{如}ㅊ'의 동사구 목적어에 2번, 동사 '爲ㅎ-', '{有}ㅐ-', '障-', '成-', '顯示-', '了知-'의 동사구 목적어에 각각 1번 현토된다.

자토구결에서 동사 '顯-'이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동사 '求-'는 동사구 목적어에 'ㅅ尸ㅅㄹ'이 현토된다. 동사 '作-'도 동사구 목적어에 모두 'ㅅ尸ㅅㄹ'이 현토되고, 'ㅅㄱ{如}ㅊ'도 동사구 목적어에 모두 'ㅅ尸ㅅㄹ'이 현토된다. 자토구결에서 피동을 의미하는 '爲ㅎ-'는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ㅅ尸ㅅㄹ'이 현토되거나 'ㅅ尸 所ㄹ'이 현토된다. 동사 '{有}ㅐ-'는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5번 발견되는데 4번이 동사구 목적어에 'ㅅ尸 所ㄹ'을 현토하고 있다.

(28) ㄱ. 或ㅅㄱ {復}ㄱ 杵ㅋ十 臥ㅅㅋㅎ 出離ㅅ尸ㅅㄹ 求ㅅㅎㅅ尸ㅁ <주본화엄14, 20:03>

ㄴ. 彼ㄱ 是 思ㅅ尸ㅅㄹ 作ㅅㅏ尸 我ㄱ 當ㅎ 心自在性ㅓ 定自在性ㅓㅅ尸ㄹ <유가20, 16:14-15>

ㄷ. 又 无嫉ノ尸入乙 依ミノ尸ム {於}自ヲ 身ミ十ノ尸入乙ンフ {如}ネ {於}他ヲ十ノ尸 亦 亦ナンカ <유가20, 28:15-16>
ㄹ. 彼フ 是 {如}ネンフ 四苦ヲ 隨逐ノ尸入乙 爲ハミ斤 七相乙 {以}ミ 審正觀察ノ亡{應}センフリ皿 <유가20, 18:07-08>
ㅁ. 是 {如}ネ 精勤ヲ 善品乙 修ンヤセ 者フ 略ヲ 四苦ヲ{之} 隨逐ノ尸 所乙 爲ハナヤセ! <유가20, 18:01-02>
ㅂ. {於}四沙門果ミ十 能カ 隨ノ 證ノ尸 所乙 {有}ユ尸 未ハンフ入ㅠ{故}ノ <유가20, 18:02-03>

(28)은 자토구결에서 동사 '求-', '作-', '爲ハ-', '{有}ユ-'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와 'ンフ{如}ネ'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ノ尸入乙'과 'ノ尸 所乙'이 현토됨을 보여준다. (27)과 (28)을 비교하면, +45(\)은 'ノ尸入乙'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점토구결에서 '所 … [+15~25(-),34(·)]'(… ノ尸 所乙)의 예는 10번 나타나는데 '爲[32~42(·)]'(爲ハ)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예로 8번, '隨[21(·)]'(隨ノ)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예로 2번 나타난다.

자토구결에서 'ノ尸 所乙'은 18번 나타나는데, '爲ハ-'의 동사구 목적어에 8번, '{有}ユ-'의 동사구 목적어에 4번, '隨ノ/隨ヵ/隨-'의 동사구 목적어에 4번, '得-'과 '流-'의 동사구 목적어에 각각 1번 현토되어 있다.

13. 53(/):ンフナ

점토구결에서 53(/)은 『유가사지론』 권5에 5번, 『유가사지론』 권8에 5번 나타난다. 53(/)의 예는 다음과 같다.

(29) ㄱ. 於煞生事[44(·)] 若未遠離[51(·),3자합부]者[23~33(··)] 此[33(·)] 顯[역독선]遇[역독선]緣[34(·),22(·),33(·)?] 容可出離[42(\),

34~35(/),53(:)}[묵권점,난상-(각필+묵서42(/),53(/),경계선-한자사각형)] 謂乃至[22~32(·)] 未遠離[삐침선(=44,/)]來[=34~44(·),구결자(火?)] 名[54(·)] 煞生{=34~44(·)}者[53(·),+45(\),51~52(:)#51(:)]//{於}煞生事十 若 未遠離(ㅢ)ㅣ{者}ㅈㅅㄱ 此ㄱ 緣乙 遇ㅋㄱ 出離ㅅㅎ{容可}ㅌㅅㄱㅗ 謂 乃 至ㅢ 未遠離來火 名下 煞生者ㅗㅅㄲㅅ乙 顯xㅣ <유가8, 10:21-23>

ㄴ. 如三洲人[34(·),11(/)] 如是[11(·)] 大力鬼[31(·)] 及欲界諸天[31(·)] 亦亦[53(/)#+53(/)] 唯[32~42(·)] 除[역독선]樂化天[31(·)] 及他化自在天[31(·),34~44(·),+51(·.),구결자(火?)]//三洲人乙 ㅅㄱ{如}ㅈ 是 {如}ㅈ 大力鬼ㅅ 及 欲界 諸 天ㅅ(ㄱ) 亦 亦 ㅅㄱㅗ 唯ㅅ 樂化天ㅅ 及 他化自在天ㅅ火 除ㅅㅎㅣ <유가5, 07:05-07>

(29ㄱ, ㄴ)은 각각 "煞生事에 대해 만약 未遠離다 하는 것은, 이는 緣을 만나면(만나서는) 出離할 수 있는 것이니, 즉 未遠離來까지를 일컬어 煞生者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三洲人과 같이 이와 같이 大力鬼과 欲界의 모든 하늘도 또한 그러하나 오직 樂化天과 他化自在天을 제외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되고, 점토구결에서 53(/)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접하거나(29ㄱ) 역접할 때(29ㄴ) 사용된다. 53(/)은 53 위치에 현토되므로 53(·)에 대응하는 'ㅗ'를 끝 글자로 하는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자토구결에서 'ㅗ'를 끝 글자로 하는 구결토 중에,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접하거나 역접하는 구결토에는 '-ㅢㄱㅗ, -ㅅㄱㅗ, -ㅅㄱㅗ, -ㅅㄲㅗ, -ㅅㄲㅗ' 등이 있다. (29ㄱ)에서 53(/)은 '容可 … [42(/)]'(… ㅅㅎ{容可}ㅌ)에 결합한다. 자토구결에서 '-ㅎ{可}ㅌ-' 뒤에는, 종결어미 '-ㅣ'를 제외하고, 모두 'ㅅ-'가 연결되며, 그 중에서도 'ㅅㄱ'이 거의 대부분 연결된다. 또한 (29ㄴ)에서 53(/)은 형용사 '亦-'에 결합한다. '-ㄱ'은 형용사와 동사에 모두 결합하지만 '-ㄲ'은 동사에만 결합하므로[9] 53(/)은 '-ㄲ'을 포함한 구결토에는 대응하지 않을 것

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53(/)은 'ㅅㄱㅗ'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자토구결에서 'ㅅㄱㅗ'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ㄱ. 又 此 遠離障导ㄴ 義ㄱ 廣ㅣ 說尸入ㄱ 知ㅅ亏{應}ㄴㅣ 說ㅅㄱ 所ㄴ 相乙 如ㅎㅅㄱㅗ 此乙 除口斤 更ㅋ 若 過ㅅㅎ 若 增ㅅㅎㅅㄱ 无ㅅㄱㅣㄱㄱㅜ <유가20, 28:06-08>

ㄴ. 彼ㄱ {於}戲論界ㅋ十 易ㅎ 安住ㅅ亏{可}ㄴㅅㄱㅗ 謂ㄱ {於}世間ㄴ 一切種淸淨ㅋ十ㅅ尸矢ㅋ <유가20, 20:13-15>

(30ㄱ)은 "또 이 遠離障导의 義는 자세히 말하면, 알아야 한다, 말한 바의 相대로 하는 것이니, 이를 除하고서는 다시 過하거나 增하거나 함 없는 줄을"과 같이 해석되고, (30ㄴ)은 "그는 戲論界에 쉽게 안주할 수 있으니, 즉 世間의 一切種淸淨에 대해서이며" 정도로 풀이된다. 자토구결에서 'ㅅㄱㅗ'는 현대 국어의 "-(하는 것)이니" 정도의 의미를 갖고,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접할 때 사용된다. 'ㅅㄱㅗ'가 선행절과 후행절을 역접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여겨진다.

14. +53(/):ㅅ尸ㅗ

『유가사지론』 권5·8에서 +53(/)은 총18번 나온다. +53(/)이 특징적으로 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31) ㄱ. 應知[42(\),51(·)] 謗[역독선]彼功德[34(·),+53(/)] 不謗補特伽羅[34(·),15~24(/),33~43(·),+11(·)]//知ㅅ亏{應}ㄴㅣ 彼 功德乙

9) 이는 점토구결강독회에서 김성주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謗ㅅ ᄃᆞᆫ 補特伽羅ㄹ 謗ㅅᄒᆞᆫ 不(ᄋᆞᆯ)ᄆᆡᆺ <유가8, 18:03-04>

ㄴ. 或有[52(·)] 所得[33(\),42(·)] 自體[22~32(·)] 由他[23(·)]{=22(·)} 所害[34(·),22(·),+53(/)] 不[역독선]由[역독선]自害[34(·),22(·),15~24(/),52(/)#52~53(/)@,경계선1]//或 有ナ(ㅣ) 得ㅅㄱ 所ㄴ 自體ㅣ 他ㅅ 所害ㄹ 由ᄒᆞᆫ ᄃᆞᆫ 自害ㄹ 由ᄒᆞᆫ ᄒᆞᆫ 不(ᄋᆞᆯ) ㄱㅣᄂᆞᆫ <유가5, 09:11-12>

ㄷ. 若法[22~32(·)] 生[15~24(/),42(·)] 時[53(·),44(·)] 其相[=22~32(·),구결자(ㅣ)] 自然不寂靜[22(·)] 起[+53(/),경계선1] 由彼起[44~45(/),24(·),43(·)]故[21(·)] 不寂靜行[22~32(·),구결자(ㅣ)] 相續[45(·)] 而[43(·)] 轉[+45(/)]//若 法ㅣ 生ㅅᄒᆞᆫ 時ᄂᆞᆫ 其 相ㅣ 自然 不寂靜(ㅅ)ᄒᆞ 起ㅅᄃᆞᆫ 彼 起ㅅㄱ ㅅㄹ 由ᄒᆞ(ㄱ)ᄆᆞ{故}ㅅ 不寂靜行ㅣ 相續ᄒᆞ 而ᄆᆞ 轉ㅅᄃᆞᆫㄹ <유가8, 01:14-16>

(31ㄱ)은 "알아야 한다, 저 功德을 謗하는 것이지 補特伽羅를 謗함 아닌 줄을"과 같이 해석되고, (31ㄴ)은 "혹 있다, 얻은 바 自體가 남의 所害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 自害를 말미암아 함 아닌 것이" 정도로 해석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 이지 … 가 아니다"와 같이 긍정적인 내용을 선행절에 제시하고, 부정할 내용을 후행절에 제시하고자 할 때 연결어미 '-지'를 사용하는데,[10] 『유가사지론』 권5·8에서는 (31ㄱ, ㄴ)처럼 +53(/)을 사용한다. (31ㄷ)은 "만약 法이 날 때에 그 相이 자연히 不寂靜하게 일어나는 것이니,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不寂靜行이 잇따라 轉하는 것을 …"과 같이 해석되고, +53(/)이 "-하는 것이니" 정도의 의미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접하고 있다.

자토구결에서는 점토구결이라면 +53(/)이 현토된 직한 곳에 'ㅅᄃᆞᆫ'가 현토되고 있다.

10) 박진호(2003ㄱ) 참고.

(32) ㄱ. 是 故ㅡ {於}彼ㄹ十 厭惡ㅅ ᄀᆞᄒᆞ 而ㅡ 住ㅅ尸ㅗ 不厭惡ㅅᄉᆞᆫ 非矢ㅣ <유가20, 20:16-17>

ㄴ. 有恩ㅅᄇᆞᆫᄂᆡ 者ㄹ十 大師ㄹ 恩乙 念ㅅᄀᆞᄒᆞ 作意思惟ㅅᄀᆞ 歡喜乙 發生ㅅᄀᆞㅅ尸ㅗ 彼乙 依ㅅᄀᆞㅅ入乙 由ᄒᆞᄀᆞㅅ入ㅡ{故}ㅅ 衆苦ㅗ 及 與ㄴᆡ 苦因ㅗㅅ尸乙 遠離ㅅᄅᆞ 衆樂ㅗ 及 與ㄴᆡ 樂因ㅗㅅ尸乙 引發ㅅ尸矢ㅣ <유가20, 28:16-19>

ㄷ. 又 {於}正信ㅅᄇᆞᆫᄂᆡ 長者ㅗ 居士ㅗ 婆羅門ㅗ 等ㅅᄀᆞㄹ十 種種ㄴᆡ 利養恭敬乙 獲得ㅅ尸ㅗ 而ㄱ 此 利養恭敬乙 依ᄒᆞ 而ㅡ 貪著乙 生ㅂ尸 不ᄉᆞᆷㅅᄀᆞ <유가20, 18:23-19:03>

(32ㄱ)은 (31ㄱ, ㄴ)에 평행한 구문으로, "그러므로 그에게 厭惡하여서 머무르는 것이지 不厭惡함 아니다"와 같이 해석되고, 선행절을 긍정하고 후행절을 부정할 때 『유가사지론』 권20에서 'ㅅ尸ㅗ'가 사용됨을 보여준다.[11] (32ㄴ)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大師의 은혜를 念하여서 作意思惟하여 歡喜를 내며 하는 것이니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衆苦이니 더불어 苦因이니 하는 것을 遠離하고 衆樂이니 더불어 樂因이니 하는 것을 引發하는 것이다"와 같이 해석되고, 이때 'ㅅ尸ㅗ'는 "-하는 것이니" 정도의 의미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접하고 있다. (32ㄷ)은 "또 正信한 長者이니 居士이니 婆羅門이니 등에게 갖가지 利養恭敬을 獲得하나 이 利養恭敬을 依하여 貪著을 내지 아니하며"로 풀이되고, 이때 'ㅅ尸ㅗ'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역접하고 있다. 점토구결에서는 (32ㄷ)의 'ㅅ尸ㅗ'처럼 역접을 나타내는 +53(/)이 발견되지 않

11) 선행절을 긍정하고 후행절을 부정할 때, 『화엄경소』 권35에서는 'ㅅᄉᆞㅗ'가 사용된다.

(1) 菩薩ㄱ {是}ㅂ {如}ᄎᆞㅅ尸 {等}ㅣㅅᄀᆞ 量ㅂ 無ㄷᆡㄱ 慧藏乙 成就ㅅᄂᆞᆫᄀᆞ 少ㄷᆡㅅᄀᆞ 方便乙 以ᄒᆞ 一切 法乙 了ㅅ尸ㅁ 自然 明達ㅅᄂᆞᆫᄉᆞᆷᄂᆞ 他乙 由ㅌᆞᄒᆞ 悟尸 不ㅅᄂᆞᆫᄀᆞ//菩薩은 이와 같은 등의 한량없는 慧藏을 成就하여 조그마한 方便을 써 一切 法을 알되 自然히 明達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은 아니며 <화소35, 19:09-11>

지만 이는 우연한 공백이라 생각하고, +53(/)은 'ㅅ尸ㅗ'에 대응한다고 추정된다.

+53(/)이 'ㅅ尸ㅗ'에 대응한다고 추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이다.

(33) 又諸離欲[33(/)] 外慧命者[33(·)] 於種種見趣[33~43(·)] 自分別[43(·)] 所起[33(\),42(·)] 邪勝解處[44(·)] 其心猛利[=22(·)] 種種[43(·)] 取着[=22(·)] 恒[22~32(·)] 爲欲染[23(·)]之 所隨逐[+15~25(-),34(·),32~42(·),+53(/)@#+53~54(/)@] 雖已[24(·)] 離欲[+21~31(/),22~23(·)] 復還[21(·)] 退起[+35(/)] 聖慧命者[33(·)] 受用[2자합부-역독선]正法[34(·),=15~25(-),33(·)]則[21(·)]不如是[33(/),55(·)]//又 諸 離欲ㅅㄱ 外慧命者ㄱ {於}種種見趣卽 自分別ᄆᆞᆷ 起ㅅㄱ 所ㄴ 邪勝解處十 其 心 猛利(ㅅ)ㅣ 種種ᄆᆞᆷ 取着(ㅅ)ㅣ 恒ㅂ 欲染ㅋ {之} 隨逐ㅅ尸 所乙 爲ㅅ尸ㅗ 已ㅣ 離欲ㅅㅅ{雖}ㅐ 復 還ㅎ 退起ㅅ尸乙 聖慧命者ㄱ 正法乙 受用(ㅅ)尸ㄱ 則ㅎ 是 {如}(ㅈ)ㅅㄱ 不(矣)ㅎ <유가5, 04:17-21>

자토구결에서 "-ㅅ尸 所乙(=ㅅ尸ㅅ乙) 爲ㅅ-" 뒤에 'ㅅ-'가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33)에서 +53(/)은 '爲 所 … [+15~25(-),34(·),32~42(·)]'(… ㅅ尸 所乙 爲ㅅ) 뒤에 결합하고 있다. 『유가사지론』 권5·8을 통틀어 이와 같은 예는 1번 나타나고, 이때 +53(/)은 +53(/)@이라 기록하고, '尸ㅗ'로 파악했다.

15. 52(/): ㅅㄱ ㅂㅗ

52(/)은 대응하는 자토를 논하기 전에 현토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4) ㄱ. 52(/):ㅅㄱㅣㅗ ㄴ. 52(/)@:ㄱㅣㅗ ㄷ. +53(/):ㅅㄹㅗ



<유가5, 08: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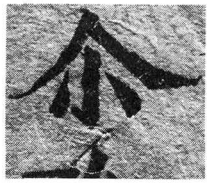


<유가5, 09:05:10>



<유가5, 09:05:06>

ㄹ. 53(/):ㅅㄱㅗ



<유가5, 07:06:12>

(34)의 사진을 보면, 한자에 테두리가 그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53(/)/ㅅㄱㅗ과 +53(/)/ㅅㄹㅗ은 하단 중간에 현토되어 있는 반면에 52(/)/ㅅㄱㅣㅗ은 하단 좌측에 현토되어 있다. 그리고 (34ㄱ, ㄴ)에서는 52(/)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 경계선1도 그어져 있는데, 여기서 52(/)은 한자의 좌측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선 밖으로(즉, 51 위치로) 나가 있지 않다.

점토구결에서 52(/)은 모두 6번 나타난다. 예는 다음과 같다.

(35) ㄱ. 或有[52(·)] 所得[33(\),42(·)] 自體[22~32(·)]{21(·)} 亦由自害[34(·),35(·)] 亦[14(·)#13~14(·)] 由他害[34(·),35(·),52(/)#52~53(/),경계선1]//或 有ナ(ㅣ) 得ノㄱ 所ヒ 自體ㅣ 亦 自害ㄹ 由ㅎ {亦}ㄲ 他害ㄹ 由ㅎㅅㄱㅣㅗ <유가5, 09:13-14>

ㄴ. 或有[52(·)] 所得[33(\),42(·)] 自體[22~32(·)] 亦非自害[35(·)] 亦非他害[35(·),52(/)#52~53(/)]//或 有ナ(ㅣ) 得ノㄱ 所ヒ 自體ㅣ 亦 自害 非(矢)ㅎ 亦 他害 非(矢)ㅎㅅㄱㅣㅗ <유가5,

09:16-17>

ㄷ. 或復有[52(·)] 一[경계선1,구결자(ㅐ)&] 墮邪梵行求[44(·),52(/)#52~53(/),경계선1]者//或 復 有ナ(ㅣ) 一ㅐ 邪梵行求十 墮ン ㄱ ㅐ ㅗ{者} <유가5, 08:21-22>

ㄹ. 或有[52(·)] 煩惱[22~32(·),구결자(ㅐ)] 是[33(·)?,구결자(ㄱ)] 倒[42(·)] 根本[52(/)#52~53(/)] 或有[52(·)] 煩惱[=22~32(·)] 是[33(·)?,구결자(ㄱ)] 顚倒[42(·)] 體[52(/)#52~53(/)] 或有[52(·)] 煩惱[22~32(·)] 是[33(·)] 倒[42(·)] 等流[52(/)#52~53(/)] //或 有ナ(ㅣ) 煩惱ㅐ 是ㄱ 倒ヒ 根本ンㄱㅐㅗ 或 有ナ(ㅣ) 煩惱ㅐ 是ㄱ 顚倒ヒ 體ンㄱㅐㅗ 或 有ナ(ㅣ) 煩惱ㅐ 是ㄱ 倒ヒ 等流ンㄱㅐㅗ <유가8, 06:15-17>

(35ㄱ, ㄴ)에서 52(/)은 동사구를 접속하는 35(·)/ㅎ 뒤에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 '-ㅎ'에 의해 접속되는 동사구들은 마지막 '-ㅎ' 뒤에 이 동사구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동사 'ン-'가 나온다.[12] 따라서 52(/)은 'ン-'를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35)에서 52(/)은 모두 '或有[52(·)]'(或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의 도치된 후행절 끝에 현토되어 있다. 자토 구결에서 도치 구문은 도치된 후행절이 '-ㅗ(=ㅅ)'로 끝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或}ヵ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은 『화엄경소』 권35와 『화엄경』 권14에 나타나는데 『화엄경소』 권35에서는 도치된 후행절이 '-ㄱㅐㅅ'로 끝나고, 『화엄경』 권14에서는 도치된 후행절이 '-ㄱ矢ㅅ' 또는 '-尸矢ㅅ'로 끝난다.

(36) ㄱ. {或}ヵ 有ナㅣ 眼 無ヒㄱㅐㅅ {或}ヵ 有ナㅣ 耳 無ヒㄱㅐㅅ 或ナㅣ 鼻ㅅ 舌ㅅ 及ヒ 以ㅈ 手ㅅ 足ㅅノ仝 無ヒㄱㅐㅅ <화소35, 15:18-19>

ㄴ. {或}ヵ 有ナㅣ 佛矢 有ナハゐゔㄱ矢ㅅ 或ナㅣ 佛矢 無ゐゔㄱ

12) 박진호(1998) 참고.

矢ㅅ … 或ㅅ기 {復}ㄱ 有ナㅣ 成トㄱ矢ㅅ <주본화엄14, 15:10-12>

ㄷ. {或}ㄱ 有ナㅣ 國土ㅣ 法乙 知尸 不ㅅナ尸矢ㅅ <주본화엄14, 14:16>

ㄹ. 又 二法 有七ㅣ {於}現觀乙 修ノ仝十 極 障导ㅣ尸{爲}入乙ㅅ ㅊㅗ <유가20, 24:10-12>

ㅁ. 若 有ナㅣ {於}三摩地ㅋ十 已ㅋ 得ホ 圓滿ㅅㅋ 亦 自在乙 得 ㅋㅅナㄱㅣㅗ <유가20, 27:14-15>

ㅂ. 若 有ナㅣ 五失 相應ㅅㄱ 諸 坐臥具乙 習近ㅅナㅊㅗ <유가20, 27:03-04>

ㅅ. (諸)(ㅋ?) 有ナㅣ 正信ㅅヒヒ 長者ㅗ 居士ㅗ 婆羅門ㅗ 等ㅅ ㄱㅣㅗ <유가20, 03:14-15>

(36ㄱ)에서 "{或}ㄱ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의 후행절 끝에 나타나는 '-ㄱㅣㅅ'는 동명사어미 '-ㄴ', 의존 명사 '이',[13] 조사 '-이여'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되고,[14] (36ㄴ, ㄷ)에서 "{或}ㄱ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의 후행절 끝에 나타나는 '-ㄱ矢ㅅ', '-尸矢ㅅ'는 동명사어미 '-ㄴ'/'-ㄹ', 의존 명사 'ㄷ', 조사 '-이여'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된다. (36ㄱ)과 (36ㄴ, ㄷ)의 차이는 『화엄경소』 권35는 의존 명사를 '이'로 취했고, 『화엄경』 권14는 의존 명사를 'ㄷ'로 취했다는 것이다. 52(/)은 (35)와 (36)을 비교했을 때, 'ㅅㄱㅣㅗ'나 'ㅅㅊㅗ'에 대응할 수도 있고, 'ㅅㄱ矢ㅗ'나 'ㅅ尸矢ㅗ'에 대응할 수도 있다. 자토구결 『유가사지론』 권20에는 "{或}ㄱ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유가사지론』 계통이 "{或}ㄱ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의 후행절 끝에

13 의존 명사 '이'는 박진호(1998) 참고.

14) 『화엄경소』 권35에서 도치 구문의 후행절 끝에 '-ㅊㅗ'(동명사어미 '-ㄹ', 의존 명사 '이', 조사 '-이여'가 결합한 구성)가 현토된 예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생각된다.

『화엄경소』 권35처럼 의존 명사 '이'를 포함한 '-ㄱㅣㅗ', '-ㅎㅗ'를 취했는지 『화엄경』 권14처럼 의존 명사 'ᄃᆞ'를 포함한 '-ㄱᄉᆞㅗ', '-ᄆᆞᄉᆞㅗ'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 (36ㄹ~ㅅ)은 『유가사지론』 권20에 나오는 도치 구문들이다. 이들은 도치된 후행절이 '-ㄱㅣㅗ'로 끝나거나 '-ㅎㅗ'로 끝나고 있다. (36ㄹ~ㅅ)을 참조했을 때, 『유가사지론』 계통은 "{或}ᄀᆞᆷ 有ㅅㅣ"에 의한 도치 구문의 후행절 끝에 『화엄경소』 권35처럼 의존 명사 '이'를 포함한 '-ㄱㅣㅗ', '-ㅎㅗ'를 현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제 52(/)이 'ㅅㄱㅣㅗ'에 대응하는지 'ㅅㅎㅗ'에 대응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음 예들은 52(/)과 동일한 점토이나 'ㅅ-'를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예들이다. 『유가사지론』 권5·8에서 이와 같은 예는 4번 나타난다.

(37) ㄱ. 或有[52(·)] 所得[33(\),42(·)] 自體[22~32(·)] 由自所害[34(·),22(·),+53(/),3자합부,경계선1] 不由他害[34(·),22(·),15~24(/),52(/)#52~53(/)@,경계선1]{+15(/)}//或 有ㅅㅣ 得ㅅㄱ 所ㄴ 自體ㅣ 自所害ㄹ 由ᄒᆞㅅᄆᆞㅗ 他害ㄹ 由ᄒᆞㅅᄉᆞ 不(ᄋᆞᆨ)ㄱㅣㅗ <유가5, 09:04-05>

ㄴ. 或有[52(·)] 所得[33(\),42(·)] 自體[22~32(·)] 由他[23(·)]{=22(·)} 所害[34(·),22(·),+53(/)] 不[역독선]由[역독선]自害[34(·),22(·),15~24(/),52(/)#52~53(/)@,경계선1]//或 有ㅅㅣ 得ㅅㄱ 所ㄴ 自體ㅣ 他ㅋ 所害ㄹ 由ᄒᆞㅅᄆᆞㅗ 自害ㄹ 由ᄒᆞㅅᄉᆞ 不(ᄋᆞᆨ)ㄱㅣㅗ <유가5, 09:11-12>

ㄷ. 或有[52(·)] 分別[=22~32(·),+15(·)] 非尋伺[52(/)#52~53(/)@]//或 有ㅅㅣ 分別ㅣㅁ 尋伺 非(ᄋᆞᆨ)ㄱㅣㅗ <유가5, 17:01-02>

ㄹ. 此[42(·)] 中[=44(·)] 或有[52(·)] 淸[22~32(·),+15(·),구결자(ㅣㅁ)] 而[43(·)] 非淨[=52(/)#52~53(/)@#=+52(/)#+52~53(/)@,경계선1] 應作[역독선]四句[34(·),=42(\),51(·)]//此ㄴ 中ㅓ 或

有ナ(丨) 淸リロ 而ㅆ 淨 非(矣)ㄱㅣㅗ 四句乙 作ノ方{應}ヒ
丨 <유가8, 18:11-12>

(37)의 예들은 모두 명사문 부정에 해당한다. 자토구결에서 명사문 부정은 "명사(구)+不矣(非矣/未矣), 非ㅣ矣"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15] 그리고 그 뒤에는 동명사어미 '-ㄱ', '-尸' 중 '-ㄱ'만이 결합한다. 따라서 (37)의 예들을 참조하면 52(/)은 'ㅅㄱㅣㅗ'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7)에서의 52(/)은, 자토구결에서 '不矣, 非矣' 뒤에 'ㅅ-'가 결합된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52(/)@이라 기록하고, '-ㄱㅣㅗ'로 파악했다.

16. +53(\):ノ尸ㅗ

+53(\)은 +52(\)과 그 현토 위치가 비슷하다. 하지만 이 두 점토는 그 현토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38) ㄱ. +53(\):ノ尸ㅗ



<유가5, 05:23:07>



<유가5, 05:23: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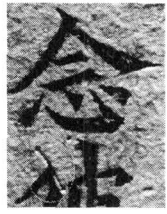
ㄴ. +53(\):ノ尸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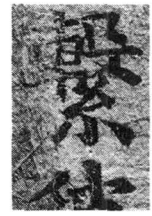


<유가5, 08:03:13>

15) 이용(2003) 참고.

(39) ㄷ. +52(\):ㅅㅜㅗ ㄹ. +52(\):ㅅㅜㅗ ㅁ. +52(\):ㅅㅜㅗ





<유가5, 09:06:06> <유가5, 09:09:04> <유가8, 10:12:09>

(38)에서 +53(\)은 한자의 중간을 기준으로, 또는 53(·)/ㅗ을 기준으로, 우측에 기입되어 있는 반면에, (39)에서 +52(\)은 한자의 중간을 기준으로, 또는 53(·)/ㅗ을 기준으로, 좌측에 기입되어 있다.

점토구결에서 +53(\)은 『유가사지론』 권5에만, 2번 나타난다. 다음은 그 예이다.

(40) ㄱ. 是故[43(·)] 此樂[34(·)] 名[54(·)] 爲常樂{53(·),+53(\)#+53~54(\)}[묵권점,난상-각필(53(·),+53(\)#+53~54(\),경계선-한자사각형)]//是 故ᄆᆞ 此 樂ㄹ 名ᄒᆞ {爲}常樂ㅗㅅㄱㅗ <유가5, 05:22-23>

ㄴ. 故[41(·)] 說此天[34(·),22(·)] 爲他化自在[53(·),+53(\)#+53~54(\)]//故ㅗ 此 天ㄹ 說ᄋᆞ {爲}他化自在ㅗㅅㄱㅗ <유가5, 08:03>

(40)에서 +53(\)은 명명 조사 53(·)/ㅗ 뒤에 결합한다. 자토구결에서 명명 조사 'ㅡㅗ' 뒤에는 동사 'ᄒᆞ-'와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한 'ㅅㅡ'가 거의 항상 나타난다.[16] 또한 +53(\)은 53 위치에 현토되므로 53(·)에 대응하는 'ㅗ'를 끝 글자로 하는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자토구결에서 명명 조사 'ㅡㅗ(=ㅗ)' 뒤에 현토되면서 'ㅅㅡ'와 'ㅡㅗ'를 포함한 구결토를 찾아보면, 『유가사지론』 권20에는 'ㅅㄱㅗ'가 보이고, 『구역인

16) 박진호(1998) 참고.

왕경』 권上에는 'ノヰㄱㇾ'가 보이며, 『화엄경』 권14에는 'ノヰㇾ'가 보인다. 이 중에서 『화엄경』 권14에 보이는 'ノヰㇾ'는 모두 도치 구문의 도치된 후행절 끝에 현토된다. (40)에서 보는 것처럼 +53(\)이 현토된 구문은 도치 구문이 아니다. 따라서 +53(\)은 'ノヰㇾ'에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ノヰㇾ'을 제외한 'ノ尸ユ'와 'ノヰㄱㇾ'의 예는 다음과 같다.

(41) ㄱ. 卽ㅋ 此 十種ヒ 生圓滿乙 名下 修瑜伽處所ユノ尸ユ <유가20, 03:19-20>
ㄴ. 是 {如}ま𠂉ㄱ 七種乙 是乙 修所成慧 俱𠂉ㄱ 光明想ㅋ 所對治ヒ 法ユノ尸ユ <유가20, 12:13-14>
ㄷ. 相待假法乙 一切之ヒ 名ゝ 相待ㇾ𠂉カ 亦𠂉ㄱ 名ゝ 不定相待ㇾノヰㄱㇾ <구인上, 14:08-09>

(41ㄴ)처럼, 『유가사지론』 권20에는 명명 동사 없이 나타나는 'ノ尸ユ'도 발견된다. +53(\)은 『유가사지론』 권20의 'ノ尸ユ'와 『구역인왕경』 권上의 'ノヰㄱㇾ' 중에서 같은 『유가사지론』에 속하는 『유가사지론』 권20의 'ノ尸ユ'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17. +52(\):ノヰユ

점토구결에서 +52(\)은 『유가사지론』 권5에 2번, 『유가사지론』 권8에 1번 나타난다.

(42) ㄱ. 謂有[52(·)] 欲界[42(·)] 天[22~32(·)] 名[33(·)] 遊戱忘念[53(·),+52(\)#+52~53(\)]//謂 有ナ(ㅣ) 欲界ヒ 天ㅖ 名ㄱ 遊戱忘念ユノヰユ <유가5, 09:05-06>

ㄴ. 或復有[52(·)] 天[22~32(·)] 名[34~44(·)] 曰[15~25(-)] 意憤[53(·),+52(\)#+52~53(\)]//或 復 有ナ(ㅣ) 天ㅣ 名火 曰尸 意憤ㅗノヰㅗ <유가5, 09:08-09>

ㄷ. 有[52(·)] 出家外道[22~32(·)] 名[34~44(·)] 曰[15~25(-)] 无繫[53(·)?,+52(\)#+52~53(\)]//有ナ(ㅣ) 出家外道ㅣ 名火 曰尸 无繫ㅗノヰㅗ <유가8, 10:12>

(42)에서 보는 것처럼, +52(\)이 현토된 구문은 '有[52(·)]'(有ナ(ㅣ)) 또는 '或復有[52(·)]'(或 復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인 동시에 도치된 후행절은 명명 구문이다.

자토구결에서 도치 구문이면서 도치된 후행절이 명명 구문인 구문은 다음과 같이 현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43) ㄱ. 妙三昧 {有}ユナㅣ 名ㄱ 隨樂ミノヰミ <주본화엄14, 17:20>

ㄴ. {又}カ 光明乙 放ンナヤセㅣ 妙莊嚴ミノヰミ <주본화엄14, 16:06-07>

ㄷ. {又}カ 光明乙 放ンナヤセㅣ 華莊嚴ミノヰミ <주본화엄14, 16:08-09>

(43)의 예들은 '有ナㅣ'나 "或ンㄱ {復}カ 有ナㅣ"에 의한 도치 구문은 아니지만, 도치 구문이고 도치된 후행절은 명명 구문이다. 또한 (43)의 예들은 『유가사지론』 권20에서 도치 구문의 도치된 후행절이 '-ㄱㅣㅗ', '-ヰㅗ'로 끝맺는다는 점에서도 일치를 보인다. +52(\)은 (43)을 참조하여 'ノヰㅗ'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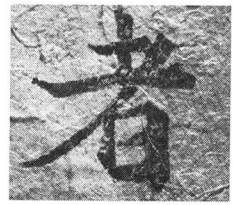
18. 15~25(-):尸

15~25(-)과 +15~25(-)은 그 현토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별된다. 점토는 형태가 동일해도 현토되는 위치가 다르면 각기 다른 자토에 대응한다. 따라서 15~25(-)과 +15~25(-)은 각기 다른 자토에 대응할 것이다. 다음은 15~25(-)과 +15~25(-)의 실제 사진이다.

(44) ㄱ. 15~25(-):尸 ㄴ. 15~25(-):尸



<유가5, 03:22:05>



<유가8, 16:02:13>

(45) ㄱ. +15~25(-):ノ尸 ㄴ. +15~25(-):ノ尸 ㄷ. +15~25(-):ノ尸



<유가8, 12:13:05>



<유가8, 12:13:09>



<유가8, 12:14:07>

(44)와 (45)를 비교해 보면, 한자에 테두리가 그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15~25(-)은 우상단 꼭지점에 바싹 붙어 현토되어 있는 반면에 +15~25(-)은 우상단 꼭지점에서 좀 떨어져 현토되어 있다.

점토구결에서 15~25(-)은 다음과 같은 구문에 특징적으로 현토된다.

(46) ㄱ. 廣[22~32(·)] 說[15~25(-),23~33(·)] 應知[42(\),51(·)]//廣ㅣ 說尸入ㄱ 知ノ亇{應}ヒㅣ <유가5, 03:22>

ㄴ. 此中[22(·),=42(·)] 略義[22~32(·)]者[15~25(-),23~33(·)]//此中ㅋヒ 略義ㅣ{者}尸入ㄱ <유가8, 16:02>

ㄷ. 由欲[43(·)] 繫[+15~25(-)] 法[22~32(·)] 將得[15(·)] 生[31(·),+11(/)@,44(·)] 若障导現前[44(.·),33(·)] 便[21(·)] 不得[15(·)]生[15~25(-),32~42(·),55(·)]//欲灬 繫ノ尸 法ㅣ 將 得ホ 生人ンア支十 障导現前ンㄱㅣ十ㄱ 便ㄎ 得ホ 生尸 不ハ(ン)ケ <유가5, 14:14-16>

ㄹ. 云何[=34(·)] 業雜染[51(·),+15(·.)] 嗢拕南曰[15~25(-)] 自性[31(·)] 若分別[31(·)] 因[31(·)] 位[31(·)] 及與[42(·)] 門[31(·)] 增上品[31(·)] 顚倒[31(·)] 差別[31(·)] 諸過患[31(·),51(·)]//云何乙 業雜染(ㅣ)ㅣノ仝口 嗢拕南 曰尸 自性人 若 分別人 因人 位人 及 與ヒ 門人 增上品人 顚倒人 差別人 諸 過患人(ㅣ)ㅣ <유가8, 09:13-15>

ㅁ. 聞彼語[34(·),15~25(-)] 已[+15(·)] 向此[34(·)?,22(·)] 宣說[35(·)] 聞此語[34(·),15~25(-)] 已[+15(·)] 向彼[34(·),=22(·)?] 宣說[35(·)?,+25(/),51(·)]//彼 語乙 聞尸 已(ㅋン)口 此乙 向(ン)ㅋ 宣說(ン)ㅋ 此 語乙 聞尸 已(ㅋン)口 彼乙 向(ン)ㅋ 宣說(ン)ㅋンア矢ㅣ <유가8, 13:21-22>

(46ㄷ)에서는 부정사 '不[32~42(·)]'(不ハ) 앞에 15~25(-)이 오고 있다. (46ㄹ)은 피인용문 앞에 상위문의 인용 동사에 현토된 15~25(-)을 보여준다. (46ㅁ)은 "-하고 나서"를 의미하는 데 "[15~25(-)] 已[+15(·)]"(尸 已(ㅋン)口)이 현토되어 있다.

점토구결에서 15~25(-)이 현토되는 환경에 자토구결에서는 '-尸'이 현토되어 있다.

(47) ㄱ. 廣ㅣ 說尸入ㄱ 知ノ亇{應}ヒㅣ <유가20, 25:23>

ㄴ. 此 中ㅋㅌ 義ㄲㄷ入ㄱ{者} <유가20, 25:12>

ㄷ. 多分 憂愁ㅅㅋㅎ 難養難滿ノ干ㅠ 喜足乙 知ㄷ 不ㅅノ个ㅌ 過失ㄲㅂ <유가20, 13:16-17>

ㄹ. 爾ㅅㄱ 時十 賢首菩薩ㄱ 偈乙 以ㅋ 答ㅅㅋ 曰ㅋㄷ 善ㅋㅁㄱ{哉}ㅓ 仁者ㅈ 諦ㄲ 聽ㅋㅋㅎ{應}ㅌㅅナㅣ <주본화엄14, 09:01-02>

ㅁ. 彼ㄱ 是{如}ㅊ 欲樂乙 發生ㅅㅋ 勤精進乙 發ㅅㅋ 遠離乙 樂ㅋㅅㄷ 已ㅈㅅㅁ 喜足乙 生ㄷ 不多ノㄷㅂ <유가20, 29:09-10>

(47ㄱ~ㅁ)은 (46ㄱ~ㅁ)에 각각 평행한 예이다. (47ㄷ)처럼, 자토구결에서 동사문의 장형 부정은 부정사 '不多/非多'이나 '不ㅅ/未ㅅ' 앞에 거의 대부분 '-ㄷ'이 온다.[17] (47ㄹ)은 자토구결에서 피인용문 앞에 상위문의 인용 동사에는 동명사어미 '-ㄷ'이 사용됨을 보여준다.[18] "-하고 나서"를 의미할 때 자토구결에서는 "-ㄷ 已ㅈㅅㅁ"(47ㅁ), "-ㄷ 已ㅈㅅㅋ"가 현토된다. (46)과 (47)을 통해서 15~25(-)은 'ㄷ'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19. +15~25(-):ノㄷ

+15~25(-)은 『유가사지론』 권5에 56번, 『유가사지론』 권8에 81번, 총137번 나와서 출현 빈도가 높은 점토라 할 수 있다. 다음은 +15~25(-)의 예이다.

(48) ㄱ. 如欲[43(·)] 繫[+15~25(-)] 善法[34(·),=11(/)] 如是色[43(·)]

17) 이용(2003) 참고.

18) 박진호(1998) 참고.

繫[+15~25(-)] 善法[22~32(·)?] 能[55(·)] 引色[43(·)] 繫[+15~25(-)] 諸勝善法[31(·)] 及无色[43(·)] 繫[+15~25(-)] 善法[31(·)] 不繫[=42(·)] 善法[31(·),34(·),55(·)]//欲ᄆᆞ 繫ノ尸 善法乙ㅅㄱ{如}ᄒᆞ 是 {如}(ᄒᆞ) 色ᄆᆞ 繫ノ尸 善法ㅣ 能ᄉᆞ 色ᄆᆞ 繫ノ尸 諸 勝善法ㅅ 及 无色ᄆᆞ 繫ノ尸 善法ㅅ 不繫ㄴ 善法ㅅ乙 引ᄉᆞ <유가5, 13:12-14>

ㄴ. 一尊重[53(·)]{32(·)} 至親[53(·)] 眷屬[53(·)] 自己[53(·),+15~25(-),23(·)]之 所守護[+15~25(-),31(·)] 二王[53(·)] 執理家[53(·),+15~25(-),23(·)]之 所守護[+15~25(-),31(·)] 三諸守門者[23(·)] 之所守護[+15~25(-),31(·),51(·)]//一 尊重ㅗ 至親ㅗ 眷屬ㅗ 自己ㅗノ尸ㄹ{之} 守護ノ尸 所ㅅ 二 王ㅗ 執理家ㅗノ尸ㄹ{之} 守護ノ尸 所ㅅ 三 諸 守門者ㄹ{之} 守護ノ尸 所ㅅ(ㅣ)ㅣ <유가8, 12:19-21>

ㄷ. 內分力[51(·)]者[23~33(·)] 謂[=33(·)] 如理作意[53(·)] 少欲知足[53(·)] 等[33(/)] 內分善法[31(·)] 及得人身[34(·),+15~25(-),31(·)] 生在聖處[44(·),+15~25(-),31(·)] 諸根无缺[+15~25(-),31(·)] 无事業障[+15~25(-),31(·)] 於其善處[44(·)] 深[22~32(·)] 生淨[+15~25(-)]信[34(·),+15~25(-),31(·),지시선(/)] 如是[11(·)] 等[33(/)] 法[34(·)] 名[54(·)] 內分力[53(·),+51(·.)]//內分力(ㅣ)ㅣ{者}(ㅅㄱ)ㅅㄱ 謂ㄱ 如理作意ㅗ 少欲知足ㅗ 等ㅅㄱ 內分善法ㅅ 及 人身乙 得ノ尸ㅅ 聖處十 生在ノ尸ㅅ 諸根 无缺ノ尸ㅅ 无事業障ノ尸ㅅ {於}其 善處十 深ㅣ 淨信乙 生ノ尸ㅅノ尸 是 {如}ᄒᆞ 等ㅅㄱ 法乙 名下 內分力ㅗノ扌ㅣ <유가5, 10:09-13>

ㄹ. 若彼[22~32(·)] 沒已[44(|)#44~54(|),33(·)] 復爲至親[33~43(·)] 兄弟[53(·)] 姉妹[53(·),+15~25(-),23(·)]之 所守護[+15~25(-),34(·),32~42(·),35(·)]{55(·)?#55(·.)?} 此若无[44(|)#44~54(|),=33(·)]者 復爲餘親[23(·)]之 所守護[+15~25(-),34(·),32~42(·),35(·)]//若 彼ㅣ 沒已xㄱㅣ十ㄱ 復 至親ᄇᆡ 兄弟ㅗ 姉妹ㅗノ尸ㄹ{之} 守護ノ尸 所乙 爲ㅅᄒᆞ 此 若 无xㄱㅣ十ㄱ{者}

復 餘親ᄅ{之} 守護ノ尸 所乙 爲ハᄒᆞ <유가8, 12:12-14>

(48ㄱ)에서 +15~25(-)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48ㄴ)에서 +15~25(-)은 명사들을 접속하는 조사 53(·)/ㅗ 중에 마지막 53(·) 뒤에 현토되므로, 자토구결을 고려했을 때 'ノ-'를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5~25(-) 뒤에 속격조사 23(·)/ᄅᆞ이 결합하므로, +15~25(-)은 의존 명사나 동명사어미를 포함한 구결토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자토구결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 'ノ尸ᄅᆞ'나 'ノᄉᆞᄅᆞ'가 현토된다. (48ㄷ)에서는, 31(·)/ㅅ에 의해 명사구가 접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15~25(-),31(·)' 뒤에 +15~25(-)이 한 번 더 현토되어 있다. 자토구결에서 접속 조사 'ㅅ'에 의해 접속되는 명사구는 'ノᄉᆞㅅ'나 'ノ尸ㅅ'와 같은 형식으로 접속되는데, 'ノᄉᆞㅅ' 형식으로 접속되는 명사구는 마지막 'ノᄉᆞㅅ' 뒤에 뒤아우름 표현(동사 'ᄒᆞ-')이 온 경우가 전혀 없고, 'ノ尸ㅅ' 형식으로 접속되는 명사구는 마지막 'ノ尸ㅅ' 뒤에 뒤아우름 표현(동사 'ᄒᆞ-')이 온 경우가 있다. (48ㄹ)은 피동을 의미하는 '爲[32~42(·)]'(爲ハ)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所 … [+15~25(-),34(·)]'의 예이다. 자토구결에서는 피동을 의미하는 '爲ハ-'의 동사구 목적어에 'ノ尸 所乙'이나 'ノ尸ㅅ乙'이 현토된다.

+15~25(-)은 자토구결이라면 'ノ尸'이 나옴 직한 자리에 현토되어 있다. 다음은 자토구결에 나타나는 'ノ尸'의 예이다.

(49) ㄱ. {於}正方便ㅣㄱ 根本定ᄆᆞ 攝ノ尸 內心奢摩他ᄀᆞ+ 遠離愛樂乙 證得ᄉᆞᄒᆞ <유가20, 16:02-03>

ㄴ. 大師尸 鄔波柁耶ㅗ 阿遮利耶ㅗノ尸ᄅᆞ {於}時時間ᄀᆞ+ 教授教誡ノ尸ㅅ乙 依ᄀᆞ 攝受依止ᄉᆞ尸矣ㅣ <유가20, 25:08-10>

ㄷ. 此ㄴ 中ᄀᆞ+ 若 聖諦現觀ᄀᆞ+ 入ノ尸ㅅ 若 障导乙 離ノ尸ㅅ 若 速疾通慧乙 證得ᄉ{爲}ㅅ 諸 歡喜事乙 作意思惟ノ尸ㅅ 若

得ㅅㄱ 所ㄹ 如ㅎㄴㄱ 道ㄹ 修習ㅅ尸人 若 極淸淨道ㅓ 及 果功德ㅓㅅ尸ㄹ 證得ㅅ尸人ㅅ尸 是 {如}ᄉᆞㄴㄱ ㄹ 名ㅏ {爲}出世間一切種淸淨ㅓㅅㅓㅣ <유가20, 31:18-23>

ㄹ. 是 {如}ᄉᆞ 精勤ᄒᆞ 善品ㄹ 修ㅅᄉᆞᆫㄷ 者ㄱ 略ᄒᆞ 四苦ㅋ{之} 隨逐ㅅ尸 所ㄹ 爲ㅎㅏᄂᆞᆫㄷㅣ <유가20, 18:01-02>

(49ㄱ~ㄹ)은 각각 (48ㄱ~ㄹ)에 평행한 예이다. (49ㄱ)에서는 '攝ㅅ尸' 이 뒤에 오는 명사 '內心奢摩他'를 수식하고 있다. (49ㄴ)은 접속 조사 '-ㅣ' 뒤에 결합하고 그 뒤에는 '-ㅋ'가 결합하는 'ㅅ尸'의 예를 보여준다. (49ㄷ)은 'ㅅ尸人'에 의해 접속되는 명사구를 보여준다. 마지막 'ㅅ尸人' 뒤에는 뒤아우름 표현으로 온 동사 'ᄒᆞ-'에 선어말어미 '-오-', 동명사어미 '-ㄹ'이 결합하고 있다. (49ㄹ)은 피동을 의미하는 '爲ㅎ-'의 동사구 목적어에 현토된 'ㅅ尸 所ㄹ'의 예이다. (48)과 (49)의 예들을 통해서 +15~25(-)은 'ㅅ尸'에 대응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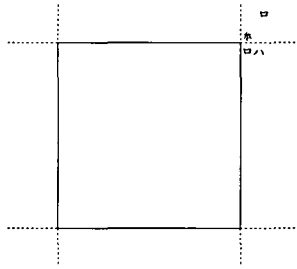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점토는 한자 획을 기준으로 매우 정밀하고 정교하게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점토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한자 획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동안 무심히 보아 왔던 점토들이 서로 변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론은 위에서 살펴본 점토들의 점도로 대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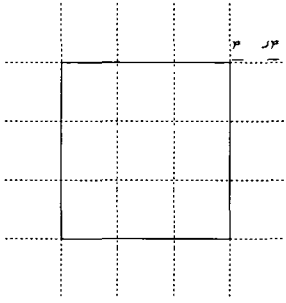
좌표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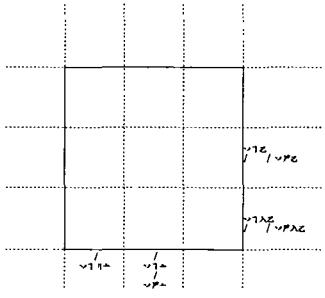
+15(·):ㅁ, 15(·):ㅈ, 15~25(·):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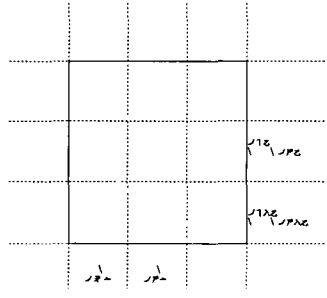
15~25(-):ㄷ, +15~25(-):ノㄷ



34~35(/):ソㄱㄹ, +35(/):ソㄷㄹ
44~45(/):ソㄱㅅㄹ, +45(/):ソㄷㅅㄹ
53(/):ソㄱㅗ, +53(/):ソㄷㅗ
52(/):ソㄱㅛㅗ



34~35(\):ノㄱㄹ, +35(\):ノㄷㄹ
44~45(\):ノㄱㅅㄹ, +45(\):ノㄷㅅㄹ
+53(\):ノㄷㅗ
+52(\):ノㅈㅗ



참고문헌

金永旭(2001ㄴ),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口訣의 解讀에 對하여」, 일본 북해도대학 국제워크숍 발표 논문집, pp. 216-223.

김영욱(2001ㄷ),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pp. 57-77.

南豊鉉(1999ㄱ),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南豊鉉(1999ㄴ), 『國語史를 위한 口訣 硏究』, 태학사.

南豊鉉(2000ㄱ),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p. 41-44.

南豊鉉(2000ㄷ),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한국서지학회, pp. 5-45.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 121-205.

朴鎭浩(2003ㄱ),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日韓漢字·漢文受容硏究會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도야마대학), pp. 143-158.

박진호(2003ㄴ), 「『瑜伽師地論』 點吐口訣에서 11위치의 單點에 대응되는 字吐」,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제24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p. 123-136.

徐民旭(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중심으로-」, 제29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윤행순(2000), 「일본의 오코토점과 한국의 초조대장경에서 보이는 부호구결의 비교」,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자료.

李丞宰(1995),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의 口訣을 중심으로-」,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pp. 215-251.

李丞宰(2000ㄱ), 「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p. 59-69.

李丞宰(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 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pp. 135-152.

李丞宰(2001ㄴ),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錡先生 回甲紀念論叢), 태학사, pp. 229-250.
李丞宰·安孝卿(2002ㄱ),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pp. 115-145.
李丞宰(2002ㄴ), 「口訣資料의 '-ㄱ-' 약화·탈락을 찾아서」, 제5차 성심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이 용(2003), 「釋讀口訣에 나타난 不定詞의 機能에 대하여」, 『口訣硏究』 11, 구결학회, pp. 249-273.
장경준(2002ㄱ),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2002년 2월 23일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 자료.
장경준(2002ㄴ),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pp. 205-225.
장경준(2002ㄷ), 「구결점(口訣點)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pp. 5-30.
장경준(2003ㄱ),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 227-247.
장경준(2003ㄴ),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指示線'에 대하여」, 日韓漢字·漢文受容硏究會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도야마대학), pp. 169-177.
장경준(2003ㄷ),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11-121.
장경준(2004ㄱ), 「『유가사지론』 권5, 8의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에 대하여」, 제2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9-20.
장경준(2004ㄴ),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30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31-143.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pp. 135-165.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7-884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66-61호 13/1〕
E-mail: minuk@catholic.ac.kr
접수일자: 2005. 6. 20.
게재결정: 2005. 7. 30.

『瑜伽師地論』巻5·8に懸吐される点吐の位置の細分について

徐民旭

本稿は同一の位置に懸吐されているものと論じられてきた15の位置の單点、15～25の位置の水平線、35の位置の斜線・逆斜線、45の位置の斜線・逆斜線、53の位置の斜線・逆斜線が、その懸吐位置が規則的に弁別され、對応する字吐も異なるこ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調査の結果、15の位置の單点は+15(·):ロ、15(·):ホ、15~25(·):ロハと、15～25の位置の水平線は15～25(-):ア、+15～25(-):ノアと、35の位置の斜線・逆斜線は34～35(/):ンフ乙、+35(/):ンア乙、34～35(\):ノフ乙、+35(\):ノア乙と、45の位置の斜線・逆斜線は44～45(/):ンフ入乙、+45(/):ンア入乙、44～45(\):ノフ入乙、+45(\):ノア入乙と、53の位置の斜線・逆斜線は52(/):ンフリ二、53(/):ンフ二、+53(/):ンア二、+52(\):ノヰ二、+53(\):ノア二と弁別されることがわかった。

キーワード: 点吐、点吐口訣、單点、斜線、逆斜線、水平線、漢字の畫、位置の細分、瑜伽師地論